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법무부는 10월 16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의 끝에 토마스 존슨의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을 허가했다. 그러나 상식을 가지면 판단할 수 있는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을 전문가들까지 꾸러 심사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법집행인지 의심스럽다

개정된 국적법 적용, 잔슨씨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받았다

국적이탈 신고 반려당했던 사관생도 잔슨씨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받아 한국 국적이탈
소송 대리 임국희 변호사, 예외적 국적이탈 문제점 너무 많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선 씨가 헌법소원 결과로 허용된 예외적 국적이탈을 10월 16일 허가 받았다. 법무부는 확인을 거부했지만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첫 번째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사례다.

토마스 잔슨씨의 행정소송을 공익소송으로 대리했던 임국희 변호사는 “미국인 아버지와 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복수국적자로 태어난 토마스 잔슨이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받아 복수국적을 해소하게 됐다” 고 23일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 임 변호사는 국적법 국적이탈 조항에 대한 3차례

메인 총기사건에 김총영사, "한인들 각별한 유의" 당부

현재까지 메인 한인 피해 보고되지 않아
총영사관 메인 총기 사건 관련 메시지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5일 밤 메인 루이스턴에서 발생한 대형 총기 참사와 관련해 보스톤 총영사관은 아직까지 한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한인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유의할 것” 을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뉴잉글랜드 재외동포 여러 분들 모두 많이 놀라셨을 것” 이라며 “총격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부상자 그리고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총영사관에서는 어제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메인주 한인회 및 관계기관을 접촉, 사건 경위와 우리 동포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이를 동포 비상연락망을 통해 알려드리며 안전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고 밝혔다.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6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평통 21기 출범식 가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 21기 출범식이 보스톤 소재 더블트리스위트 힐튼호텔에서 19일 저녁 개최됐다.

오은희 평통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서 김재휘 보스톤 총영사는 수석부회장을 대신해 한문수 보스톤협의회장과 오은희 간사를 비롯해 참석한 모든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제 21기 평통에는 총 53명의 평통위원이 위촉됐으며 남성위원이 28명, 여성위원이 25명으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이뤘다. 또한 45세 이하의 청년 위원도 18명이 위촉됐다. 임원으로는 수석 부회장에 박상원 위원이 부회장에 이석원, 이한나씨 그리고 부간사에는 박찬모 유현경씨가 각각 임명됐다.

한문수 협의회장은 출범식 개최사에서 평통위원 모두에게 50년 뒤인 10월 19일 자신이 지금 이순간을 바라볼 것을 주문하고, 그 때 느낄 수 있는 회한을 가지고 바로 50년을 선물해 준다면 바로 지금이라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더 웃고 잘해 줘야 한다고 느낄 것” 리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면서 평통을

“21기는 화합, 잘못해도 괜찮으니 뭐든지 재밌게 하자” 고 주문했다.

김재휘 총영사는 “21기의 평통의 제일 중요한 화두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천하기 위해 전세계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다시 자리매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보스톤협의회는 동포사회의 특징을 담아서 세대를 초월하고 각계각층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됐다” 며 “모든 위원들이 통일역량 강화의 개척자, 리더로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는다” 고 덧붙였다.

장영수 한인회장은 평통과 더욱 협력하겠다고 강조했고 양미아 회장은 통일이 되면 한국의 인구난 해소는 물론 지하자원 등의 혜택도 있을 것이라며 평통위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한문수 회장은 한선우 20기 회장, 장수인 20기 수석부회장, 오은희 20기 간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지역협의회 임원 선임 내용 및 사업계획에 대해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평통위원 박학민 민주지역과장과 직원들이 참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는 19일 출범식을 가졌다. 사진은 출범식의 모습



보스톤총영사관 김재휘총영사는 김관용 수석부회장을 대신해 한문수회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해 회의 진행을 도왔다. 한인사회에서는 장영수 한인회장, 양미아 시민협회장 외 고종석 제노스코 대표가 참석했으며 보스톤총영사관에서는 홍순복 부총영사, 김원동 영사가 참석했다.

MIT 중심 한인 학생들 모임, 하프마라톤 함께 달리기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MIT 한인 대학원 달리기 모임인 CRRC(Charles River Running Crew) 소속 학생 10여명을 비롯한 유학생들은 11월 5일 케임브리지 찰스강변에서 하프마라톤에 도전한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찰스강변 주변을 1시간씩 뒀 후 짧게 커피타임을 갖는 달리기 모임이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1시간 뛰는 것 외에도 10K 마라톤, 케임브리지 사이드 하프마라톤 등 러닝 관련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CRRC의 정민석씨는 “평소 러닝을 좋아하시거나 새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의 연락을 언제나 환영한다” 며 함께 찰스강변을 뛰고자 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들은 11월 5일 오전 7시 이스트 케임브리지의 퍼스트 스트리트(First st., East Cambridge)에서 출발해 찰스강변을 따라 올스틴 솔저스필드를 돌아다시 퍼스트 스트리트에서 마라톤을 종료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SEOUL SEORIM TANG

SUMMER SPECIAL COLD NOODLES

N1. 물냉면
Mul-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in cold beef broth

SPICY

N2. 비빔냉면
Bibim-Naengmyun
Cold root starch noodles with beef briskets, assorted vegetables and a boiled egg with spicy sauce on top

COMBOS cold noodles+bbq

N3. 냉면+삼겹살구이
Naengmyun + Samgyeopsal Gui (pork belly)

N4. 냉면+L.A.갈비
Naengmyun + L.A. Kalbi (beef short ribs)

N5. 냉면+돼지양념구이
Naengmyun + Daeji yangnyum Gui (pork slices)

Before placing your order, please inform your server if a person in your party has a food allergy.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톤한인교회 한국문화축제, 지역이웃들과 문화 나눔

“지역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한국 문화 축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브루클라인 소재 보스톤한인교회는 11월 4일 토요일 지역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 오감 만족 제 8회 한국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축제에서

는 1부 한국문화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오후 7시부터는 메인 이벤트로 2부 공연을 선사한다. 1부에서는 한국음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한복입어보기, 서예 체험부터 최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 소개까지 다양한 먹

거리, 체험 및 볼거리가 준비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수준높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무용, 음악, 케이팝 댄스 및 태권도 시범이 진행된다.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 교회인 보스톤한인교회는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기획 및 진행해 왔고 이번 한국문화 축제로 그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보스톤 한인교회는 브루클라인과 그 주변 지역 문화 및 교육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 및 기여해 왔다.

이번 문화축제의 주제는 “우리 이웃과 나누는 감사: Sharing Gratitude with our Neighbors” 이다. 보스톤한인교회 한인 커뮤니티가 지난 70년간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한 지역의 관심과 사랑에 이번 행사를 통해서 감사를 전하고 나눔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무료다. 한인교회 측은 “한인들과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맛보며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누리길 바란다.” 고 한인들을 이번 축제에 초대했다.

보스톤한인교회=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보스톤 한인교회는 1953년에 설립, 1967년부터 브루클라인에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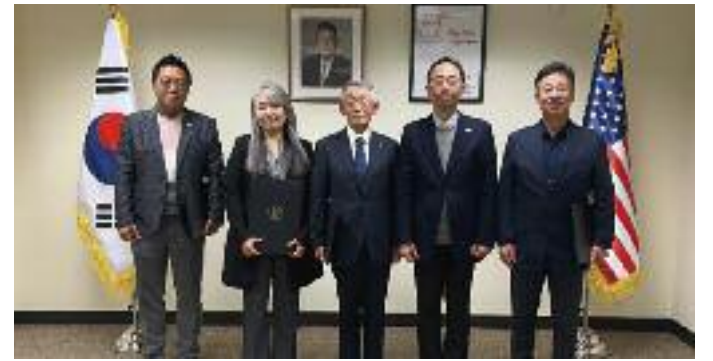
반을 두고 있다. 브루클라인 타운홀 앞, T- 스테이션 (Brookline Village) 근처에 위치한 이 교회는 미국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First Presbyterian Church와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2010년 완공된 ECC 커뮤니티 센터는 문화행사, 교육 세미나 및 다양한 지역 사회 단체 행사에 널리 쓰이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출범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가 임박함에 따라 보스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출범했다.

주보스톤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화요일 위원회의를 소집해 재외선거관리 위원으로 남궁연, 박진영, 윤성근 이현경씨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원회의에서 남궁연 위원

을 위원장, 박진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총영사관 김범준 실무관은 간사직을 수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말까지 운영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는 2023년 11월 12일 월요일부터 2024년 2월 10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재외투표는 2014년 3월 27일부터 2024년 4월 1일까지 실시된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편집자 노트> 변호사도 기자도 헛갈리는 국적법 이탈 기간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에 대해 이를 보도하는 기자들은 물론 재판에 임하는 법무부 변호사들마저 혼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가 주 적용 대상인 국적법에 그만큼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것이다.

한국의 병역법에 근거한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신고기간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이다. 17세 이전까지는 아무 때나 이탈이 가능하지만 18세가 되는 해부터는 병역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는 것이다.

임국희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의 법은 90%가 만 나이 즉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이 많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병역법을 포함 일부 법률만 예외적으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따라서 만 18세라고 표기하지만 실제로는 만 나이 기준 18세가 된 시점부터 3개월이 아니고 연 나이 기준 즉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을 보도한 연합뉴스 TV는 “남성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면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때

를 놓치면 20년 동안 국적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도했다.

“병역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면 3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는 표현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병역의무가 생기는 만 18세’ 는 ‘생일이 지나 18세가 된 시점’ 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만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라고 적어야 한다. 실제로 만 18세가 되고나서 3개월 안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 이전에도 국적이탈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표현해야 한다.

임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진행한 법무부측 변호사도 국적이탈신고기간을 잘못 이해해 준비서면에서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고 말했다. 현행 법이 이처럼 법률전문가들마저 혼동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명확하지 못하고 난해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임 변호사는 지적한다.

복수국적법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복수국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이다.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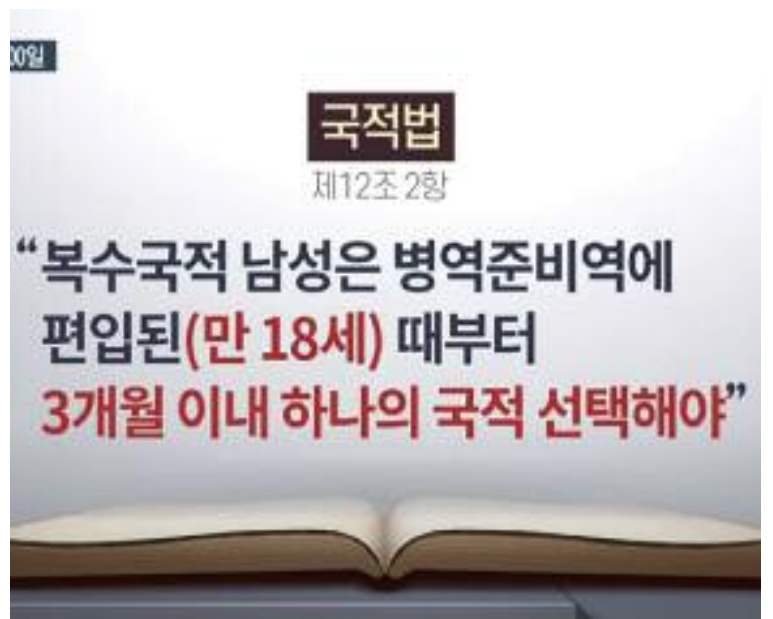
이면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되므로 특히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계가 아닌 경우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잔손의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한인부모들도 2세 남성들의 경우 병역문제 때문에 부모가 국적이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2세 여성인 경우 만 20세가 되면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방지하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복수국적이 된 2세 여성들이 결혼해 3세를 낳으면 이들도 선천적복수국적자가 되는 특이한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의 해법으로 선천적복수국적은 자동국적 상실제를 도입해 한국국적 선택기간을 주고 기간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선천적복수국적자들은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케 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국적이탈도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닌 경우 간소하지만 합리적인 신청 절차를 거쳐 이탈을 할 수 있게 하는 독일과 이스라엘처럼 바뀌어야 한다.

국적 이탈 신청은 법무부를 거쳐야 하기에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행정력의 낭비다. 예외적 국적이탈



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 심사한다. 법무부 소관인 국적이탈 여부를 전문가단을 꾸려 심사하는 것은 책임회피이자 국고낭비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위원회를 꾸려서 판단을 구한다?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국적법 관련조항은 한국의 병역법이 낡은 미숙하다. 병역기피, 원정출산이란 국민적 정서를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이로 인한 피해자 양산의 문제는 고려치도 않았다. 헌

법 불합치로 법이 개정됐지만 개정의 목적이 여전히 ‘병역기피’ 방지에 놓여 있다 보니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몰라서 못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다. ‘국적이탈’ 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들의 앞날에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이유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의 피가 자랑스럽고 애정을 갖도록 하는 첫 단추가 국적법 관련조항의 개정이 될 것이다.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개정된 국적법 적용, 잔슨씨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받았다

▶▶1면에 이어서

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사관학교에 진학해 미군 장교가 되고자 했던 한인 2세 잔슨은 지난 2021년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서류를 준비해 국적이탈을 시도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하에서 모든 업무가 전면 온라인 예약제로 운영되는 바람에 예약이 잡히지 않아 기한 내에 뉴욕총영사관을 방문할 수 없었다. 결국 기한보다 한 달 늦은 4월에 공관을 방문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

‘날벼락’ 같은 결과에 불복한 잔슨은 지난해 6월 7일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이 관할공관의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공지, 코로나 상황의 비상 대책이었던 선 온라인 신청제의 홍보부족,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재외국민의 민원창구인 외무부사이의 엇박자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이 주요 소송 사유다.

이번 행정소송은 1심 재판이고 증

거와 주장들이 초기에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지 않았다. 재판부의 고심이 깊었다는 방증이다. 재판부는 소송 진행 중에 예외적국적이탈 신고제도가 임법되자 예외적 국적이탈신고를 권유했다.

임국희 변호사는 “재판부도 우호적인 심증을 내비치는 상황에서 승소판결까지 받는 것이 변호사에게는 최선의 결과”였지만 “이 판결로 인해 바로 국적이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잔슨의 가족은 이번 국적이탈 허가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관학교 신원조회서에 복수 국적자가 아니라고 표시했으나 이후 국적이탈신고가 반려처분을 받고 흑시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했었던 것이다.

잔슨의 예외적 국적이탈신청이 법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받아들여졌지만 아직도 억울한 선천적복수국적법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변호사는 “위원회까지 꾸러서 엄격히 심사하는데 해외에 체류하고 국어도 능숙하지 않은 신청인이 법무부의 논리에 대응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한다. 구비서류가 많고 규정이 불명확한 점이 많아서 비법률가인 일반인이 사유를 소명하기는 무리인 점이 많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미국이 이민법 절차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처럼 국적이탈 특히 예외적 국적이탈신고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의 대리조력을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선천적복수국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예외적국적이탈신청이 간소화되어야 하며 미주 한인 동포들이 전면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자동국적상실제를 부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산악회 20차 정기산행 4일

매스 최고봉인 그레이락 마운틴으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11월 4일 토요일 매사추세츠 서부에 위치한 그레이락 마운틴 (Mt. Greylock)과 네번째 봉우리인 윌리엄스 마운틴으로 정기산행을 떠난다.

이번 산행은 A조의 경우 왕복 9.4마일의 트레일을 타며 B조는 5.6마일의 트레일을 탄다. 산행시간은 7-8시간이고 난이도는 3 또는 4 정도이다.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물, 간편 중식, 스틱(Trekking Poles), 방풍의, 우의, 모자, 등이며 회비는 \$20이다. 면으로 된 티셔츠 청바지 등은 착용해서는 안되며 헤드램프, 장갑 등을 준비해야 한다. 배낭은 뒤로 넘어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집결지는 프레밍햄 샤퍼스윌

드 (Shoppers World Framingham 1 Worcester Rd, golf galaxy 앞)에 7시까지 집결해야 한다. 산행 신청은 11월 2일 목요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불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산악회는 “정상에서 바람이 거세고 기온 변화가 매우 심하니 겨울 장갑과 바람막이 모자 달린 따뜻한 자켓을 꼭 준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산악회는 산행지는 당일 바뀔 수도 있고 날씨 관계로 취소할 수도 있으니 전날 꼭 웹사이트를 참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http://cafe.daum.net/boston-mountaineers
기타문의 : 전화 617-780-9588 (들꽃향기)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 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거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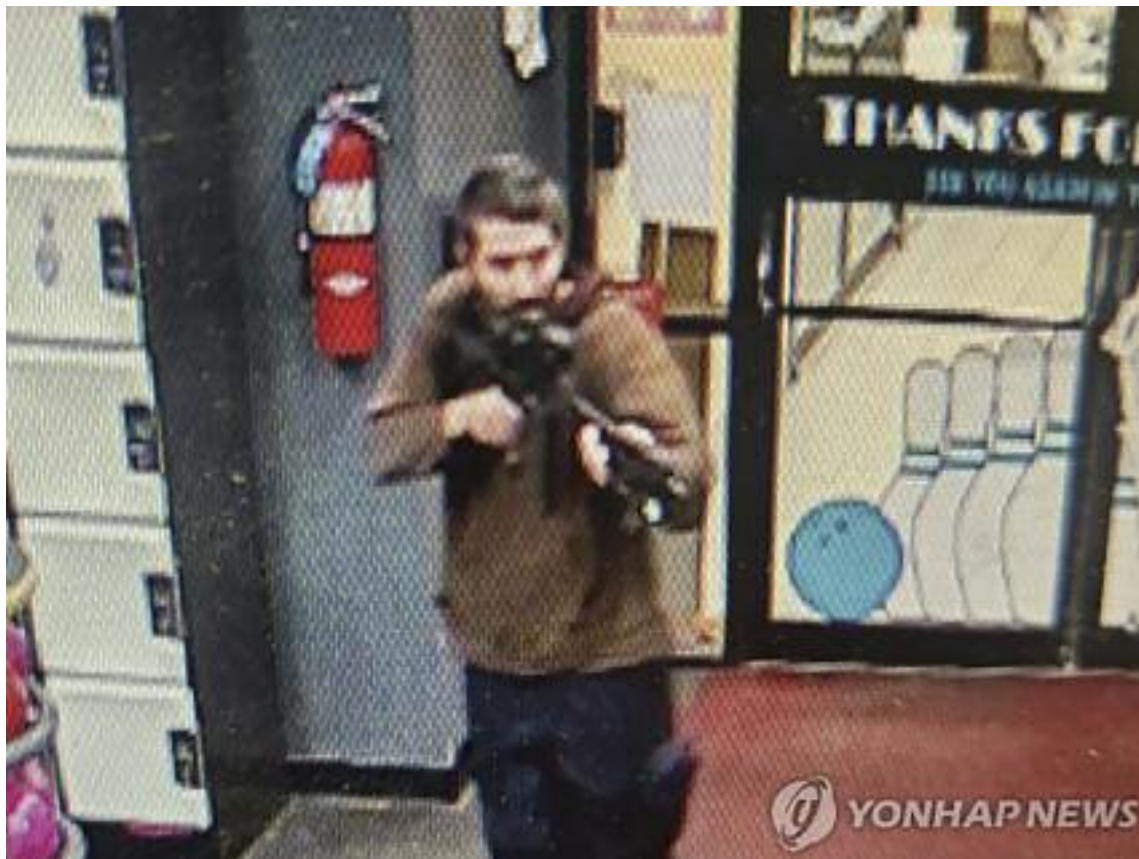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윈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의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협력업체



경찰, 메인주 총기난사 용의자 쫓는 중... "정신 건강에 문제"

훈련받은 총기 강사로 현지 예비군 소속...최근 환청 등 정신 이상 보고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지난 25일 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최소 22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난사 사건의 용의자는 훈련받은 총기 강사로 이 지역 예비군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경찰 당국은 40세 남성 로버트 카드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현재 추적 중이다.

미국 폭스뉴스는 26일 메인주 정부 기관인 정보 분석 센터(Maine Information and Analysis Center·MIAC)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MIAC는 경찰 당국에 따르면 카

드가 최근 환청을 듣고 메인주 방위군 기지에서 총격을 벌일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정신 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에는 2주간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는 아직 붙잡히지 않은 상태로 현지 경찰 당국이 추적 중이다.

경찰은 26일 자정께 루이스턴 인근 소도시 리스본의 한 선착장에서 카드 소유의 흰색 SUV 차량을 발견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카드는 전날 밤 루이스턴의 볼링장과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해 최소

22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는 50~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인주 공안 위원 마이크 서스척은 이날 밤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당국이 상황이 아직 "매우 유동적"이라며 정확한 희생자 수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메인주 전체에서 발생한 살인 피해자 수는 29명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이번 사건의 사망자만 해도 이에 근접하는 수치라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wisefool@yna.co.kr

메인 총기사건에 김총영사, "한인들 각별한 유의" 당부

▶▶1면에 이어서

수십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 총격 참사는 베이츠 대학이 위치해 있는 메인 중부의 루이스턴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용의자인 로버트 카드(40)가 총기를 소지한 채 도주 중에 있다. 경찰 및 법집행 당국은 용의자를 쫓는 한편 지역에 거주지에서 외부 출입을 금하는 쉘터인플레이스 권고를 내렸다.

안영례 메인 한인회장도 "현재까지 한인 피해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루이스턴에 사는 한 한인 2세는 퇴근 후 집으로 가지 못하고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고 전했다.



김재휘 총영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있을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총영사관에서는 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 당국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총영사관 총기사건 관련 발표문

10.25(목) 저녁 메인주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메인주 뿐 아니라 뉴잉글랜드 재외동포 여러분들 모두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총격사고로 인한 희생자와 부상자 그리고 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어제 사고 발생 소식을 접한 즉시, 메인주 한인회 및 관계기관을 접촉, 사건 경위와 우리 동포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이를 동포 비상연락망을 통해 알려드리며 안전 유의를 부탁드립니다.

다행이도 현재까지는 우리 재외국민 및 동포들의 피해사실이

금년들어서도 수차례 어제 사고와 유사한 총격사고가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우리 동포사회에서는 이러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유지하며 유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영사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 발생에 대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중은치과, 중은치아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주정부, 1백만달러 이상 주택 매매에 세금 부과 제안

거둔 세금수입으로 저소득 주택인 어포더블 하우스 건축 제안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지사가 1백만달러 이상의 주택 판매에 대해 0.5%에서부터 2%까지의 이전세(Transfer tax)를 부과하는 주택채권법안을 제안했다.

모라 힐리 주정부는 이번 세금이 주내 상위 14% 미만의 주택판매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들을 끄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스톤글로브는 20일 보도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그레이터 보스톤지역의 상당수의 주택이 1백만달러를 넘기 때문이다. 매사추세츠 주 부동산 매매정보를 집계하는 워렌그룹(Warren Group)에 따르면 예를 들어 웨스트우드(Westwood)의 단독주택 중간가격은 \$1,110,000; 알링턴은 \$1,172,500, 니덤(Needham)은 \$1,355,000 그리고 윈체스터는 \$1,417,500이다. 이들 지역만도 중간지점이 이미 1백만달러를 훌쩍 뛰어넘는다.

워렌그룹은 올해 판매된 30,665 단

독주택 중 1백만달러를 넘어 판매된 집은 약 1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주택 문제를 연구해 온 텡스대의 주택정책분석센터의 이반 호로위츠 센터장은 이번 주정부의 법 제안으로 인해 향후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30%가 세금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매도자인 주택소유주에게 세금이 부과되므로 주택 매매가에 이를 반영시켜 결국 구매자도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오히려 주택값의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전세(transfer tax)는 적용 과정은 다음과 같다. 타운 또는 시정부가 세금 적용 대상 주택을 결정한다. 이 세금은 전체 판매액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1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판매액에 적용된다. 만약 카운티의 중간주택의 가격이 1백만 달러를 넘는 경우 적용 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1백 20만달러에 팔았다면 세금은 \$200,000에 대해서 적용되며 세율은 2%다. 이 경우 이

전세는 \$4,000이 된다.

한 부동산 브로커는 알링턴의 1백 10만달러의 주택을 소유한 노부부의 예를 들었다. 이 부부는 1970년도 8만 달러에 구입했다. 3명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몇차례 집을 재융자했으며 현재 약 41만달러의 모기지를 안고 있다.

결국 1백만달러의 집을 파는 사람들이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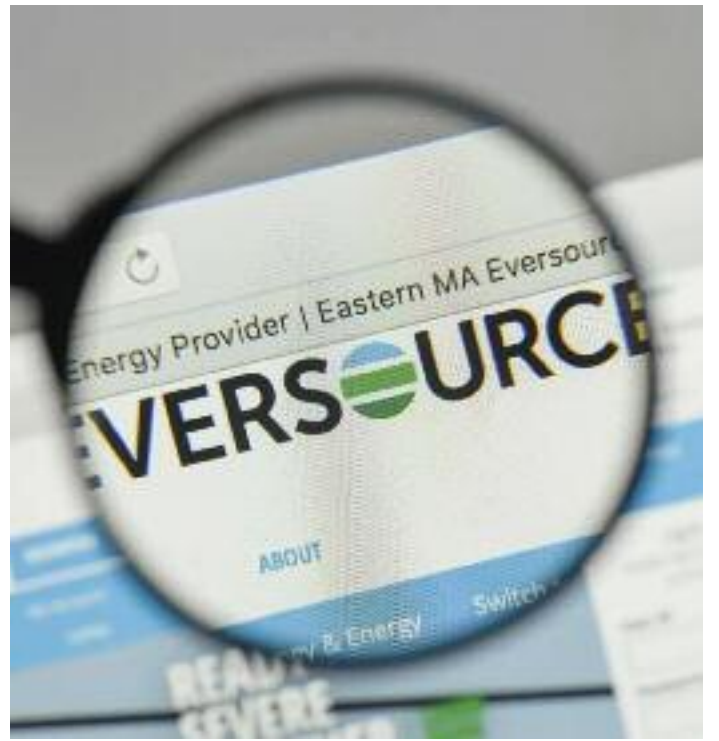
이번 주택세금은 41억달러 규모의 본드법안에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세수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 주택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스의 건축에 자금이 소요된다. 한 분석에 따르면 모든 타운이 1%의 세금을 적용한다면 3억2천만달러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에게 4%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백만장자세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재계는 이번 법안에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였다.

매사추세츠는 세금재단의 선정에 따르면 2023년 미국내 세금 친화적인 34번째 주였다. 그러나 백만장자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경우 이 재단은 매사추세츠가 46번째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했다.

매사추세츠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이를 위해 누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가 남았다.

1백만달러 주택은 더 이상 부유층의 주택이 아니다. 이제는 중산층의 주택이다. 중산층에 대한 세금이 성공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MA 올겨울 난방 천연 가스요금 인상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1월부터 매사추세츠 천연 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된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때문에 난방을 시작한 가정들은 앞으로 더 많은 난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주내 최대 천연가스 공급 유틸리티 업체 에버소스와 내셔널그리드는 주 공공유틸리티부(DPU)에 겨울 난방시즌 천연가스 요금 인상을 요청했다.

에버소스는 과거 엔스타 고객들의 경우 11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썸(Therm)당 \$0.7746로 인상한다. 컬럼비아 가스 고객들의 경우 썸당 \$0.7119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겨울 썸당 각 \$1.1101, \$0.8507에 비해 조금 낮은 편이다.

에버소스는 DPU 가격조정 신청서에서 "이번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적은 수율로 인해 구매비

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내셔널그리드는 그러나 지난해보다 가스가격이 더 높을 예정이다. 내셔널그리드는 11월 1일부터 썸(therm)당 \$0.8122로 인상된 금액을 신청했다. 아직 이 가격은 주정부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승인될 경우 내셔널그리드 측에 따르면 평균 월 111 썸을 쓰는 가정의 경우 (가스 공급비용, 배송비용 등을 포함해) 한달 약 \$263의 가스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겨울보다 약 3% 인상된 비용이다.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11월 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되므로 겨울엔 난방비 인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hsb@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매매 합니다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크레딧 카드 자동결제시, 소비자 더 많은 돈 지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자동적으로 요금을 결제하는 크레딧카드 오토페이를 설정해 놓은 것은 편리한 크레딧 카드 결제 방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된다.

자동결제 즉 오토페이는 크레딧카드 회사로부터 매달 크레딧카드 회사가 일정 금액의 돈을 결제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는 고정 비용 지출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이다. 지난 십년간을 거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요금 결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

소비자 금융보호원(CFPB)에 따르면 이 같은 자동결제를 선택하는

비율은 2015년에 2020년 사이 두배로 늘었으며 현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론상으로 높은 자동결제 크레딧카드 상환 방법은 크레딧카드 결제를 잊어버려 카드연체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요인 때문에 크레딧카드 수수료를 줄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카드 사용자들의 수수료와 이자 지급분은 19% 늘어난 총 2400억 달러였다.

상당수 크레딧 고객들은 자동상환금액을 너무 적게 설정해 놓는다. 질리언 왕 일리노이 대학 재정학과 부교수는 수동적으로 매달 크레

딧 카드를 결제하는 사람보다 자동 결제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약 매달 8-17% 낮게 크레딧 카드 금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다.

적은 금액의 결제는 더 많은 이자로 이어지며 이는 연체 수수료 지불을 피하는 이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특히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크레딧카드 고객들이 자동결제를 설정할 때 세가지 옵션이 주어진다. 미니멈 월 페이먼트, 크레딧 사용잔고 전액, 또는 고객 설정금액 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니멈 페이먼트가 아니면 전액을 선택

한다. 전액 결제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약 10개월 이내에 설정을 바꾸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옵션을 장기적으로 선택하기는 힘들다.

왕교수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월 최소금액 상환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설정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약 4분의 3의 크레딧카드 사용자들은 최소한 한가지 크레딧카드에 대해서는 자동결제를 선택하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오토페이를 사용하는 것에 좀더 편안해하고 있다. 이는 설정해놓고 잊어버리지는 마음 자세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은행들도 이런 자동설정을 좋아한다. 자동 결제를 설정하는 고객은 자동페이를 설정하지 않는 유사 크레딧 카드사용자에 비해 위험율이 절반으로 줄기 때문이라고 싱크로니 파이낸셜의 맥스 액셀러 최고 크레딧 책임자는 밝혔다.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가끔씩 카드금액을 잊고 연체하는 고객들에게 자동페이를 설정하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혜택을 이야기 한다. 크레딧카드 연체는 만료일이 지나서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크레딧 뷰로우에 보고하지 않는다.

카드 잔액을 전액 결제하기 전에 자동결제를 해지하는 계좌 또는 여러 자동 결제 어카운트가 결제자금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고 사인이라고 액슬러는 말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지불 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는 말한다.

수많은 지역은행의 크레딧카드 회사 캐피탈 서비스에 따르면 0.3%의 자동결제 플랜이 결제자금 부족을 매달 해지되고 있다.

“이 같은 해지율은 아직 크게 높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자동결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높다” 고 캐피탈 서비스 수석 부회장 세리 투넨더 씨는 밝혔다.

“자동결제를 진행해 이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이를 선택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디폴트를 선택하라

크레딧카드 이자를 피하는 확실한 방법은 전액을 결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소득이 있으며 일정한 소비 습관이 형성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옵션이다. 체크 계좌에 충분한 돈이 없는 상황에서 크레딧카드를 통해 더 많이 소비를 한다면 한도초과 수수료는 크레딧카드 연체수수료와 다를게 없다.

따라서 크레딧카드 자동결제 날짜를 크레딧카드 결제일에 맞추지 말고 자신의 주급 또는 월급받는 날에 맞추어야 한다고 왕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과거처럼 직접 크레딧카드 결제일에 수동으로 이를 결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재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래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날씬하고 유연한 다리를 위한 하루 10분 스트레칭



오래 앉아 있다 목 어깨부터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까지 몸 전체가 빠근해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하체부종이나 하체비만, 허리통증으로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과 함께 유튜브 영상 참고하셔서 더도말고 하루 10분만 스트레칭 해보세요. 하체라인이 예뻐지는 건 물론, 구부정한 자세를 곧게 펴주고 골반 교정 효과까지 가져와 허리 통증도 사라질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요가읽어주는 여자 hayeon' 에서 (DAY1) 십분 요가 I.. 레전드 하체 스트레칭 편을 찾아 따라하시면 쉽고 재밌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Frog Pose (개구리 자세): 내전근 즉 허벅지 안근육 늘리기

1단계 매트 옆면을 사용해 무릎을 서로 멀



게 벌려줍니다.

2단계 무릎이 아파다면 매트 끝을 접거나 담요를 받쳐주고 두 손은 바닥에 내리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갑니다.

3단계 두 무릎이 90도 정도로 유지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좀더 빼줍니다.

4단계 앞뒤로 왔다 갔다 5회 이상 반복 후 다음 변형 동작을 준비해주세요

TIP! 처음에 두 발을 벌리는 게 힘들다면, 두 발을 뒤에서 모으고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칭 하면 됩니다.

2. Frog Pose + Thread The Needle (개구리 변형 자세): 안박지 스트레칭 + 어깨와 허리 통증 완화

1단계 개구리 자세에서 사진과 같이 한 팔



을 반대 겨드랑이 밑으로 통과해 뺏어줍니다.

2단계 머리 옆면을 바닥에 대거나 팔베개해서 길게 다섯 호흡이상 자세에서 유지해주세요

3단계 방향을 바꿔 반대 방향으로도 스트레칭 해주세요

TIP! 목과 어깨의 긴장을 완전히 풀면서 깊게 호흡하며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3. Frog + Cobra Pose (개구리 변형 자세): 자세 교정 효과

1단계 앞의 자세에서 천천히 나와 두 손으로 바닥을 누르며 상체를 일으켜 줍니다.

2단계 턱을 살짝 올리고 시선을 천정 사선을 향해 바라보세요.

3단계 엉덩이는 여전히 뒤를 향해 뺀 상태에서 자세에서 멈춥니다.

4단계 3-5호흡 유지하고 천천히 자세에서 나와 휴식합니다.

TIP! 할 때에는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프지만 하고 나면 정말 시원한 동작이니, 주무시기 전에 오늘 알려드린 자세들 꼭 해보시길 숙



면하시길 바랍니다.

송선생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 & 필라테스

"필라테스와 요가를 한번에"

요요없는 체중감량에 성공하고 싶다면? (특정부위 집중 감량 가능! 예. 뱃살, 등살, 허벅지..)

생리통,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쉽게 지치고 아픈 '저질 체력'이라면?

다른 사람 신경 안쓰고 맘편하게 운동하고 싶다면?

작심삼일 즉 하다말다 하는 운동에서 탈피! 제대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하려면?

(온라인 개인 1:1 과 그룹 수업 모두 가능)

*참여방법 - 카톡아이디 YOGAFULNESSLIFE 로 '친구추가' 한후 먼저 인사해주세요

송하연, 요가치처/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ENG)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KOR) <https://bit.ly/3w9ks4u>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yogasong_hayeon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ness.life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thony's Church, Parish of Corpus Christi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임교자를 위한 고려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 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매달 첫토 오전 10시 30분

연락주세요:
stadp@icloud.com / 617-551-2711

46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icloud.com / stdavelr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r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사랑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현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초이스 간판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COMPASS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보스턴 매거진에서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compass.com | jason.jeon@compass.com

Jason Jeon is a highly experienced and reputable real estate professional with over a decade of experience in the industry. With his solid expertise in luxury home purchases and sales, he provides his clients with exceptional consulting, marketing, and negotiation services. Having lived in Boston for over 30 years after being born in South Korea, he has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local real estate market. Jason's dedication to his clients is evident in his personalized approach, where he prioritizes building solid relationships through effective communication, credibility, and determination. Being a Pricing Strategy Advisor, he leverages his extensive knowledge to offer his clients informed pricing strategies, and his exceptional negotiating skills ensure the best possible outcomes for them in every transaction. Jason's commitment to providing exceptional customer service is evident in his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with his clients.

Jason Jeon
 Vice President
 M: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조셉 얼리 주니어 우스터 지검장(사진=페이스북캡처)

경찰 아내 살해의혹 30대 가드너 남성 추적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및 가드너 경찰은 25일 가드너 소재 400에이커에 달하는 숲에서 아내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33세의 애른 페닝턴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애른 페닝턴은 지난 일요일 가드너에 소재한 집 (42 Cherry St.)에서 그의 아내 베리나 페닝턴의 얼굴에 총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중인 페닝턴은 6피트 2인치 의 크기에 금발과 푸른 눈을 가졌으며 현재 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반인들은 그와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했다.

가드너 경찰과 주 경찰은 캠프 콜리어로 알려진 숲 지대를 24일부터 수색 중에 있다. 이곳은 보이스카웃 또는 교회 그룹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닝턴이 소유한 BMW 차량은 23일 월요일 캠프 콜리어 인근 켄턴 스트리트의 산길에서 한 사냥꾼에 의해 발견됐다. 가드너 경찰은 차가 발견된 지역의 주택 거주자들에게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도록 하는 명령을 임시로 발령했다. 주 경찰은 24일부터 소셜미디어에 혐의자 수색 여부에 대해 알리고 25일 수색을 재개했다.

조셉 얼리 주니어 우스터 지검장은 “트레일캠 또는 사냥꾼 집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 이를 넘겨 달라”고 말하고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드너의 문제 가정은 4명의 학교 출석 연령의 자녀가 있으며 주정부에서 현재 보호하고 있다고 지검장은 밝혔다. 애른 페닝턴은 지난 2022년 이래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경제력 평가된 美SAT... 고득점자 3명 중 1명은 0.1% 금수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대입자격 평가시험 SAT에서 고득점을 받은 학생 3명 중 1명은 경제력 상위 0.1%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 시간) 라지 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등이 2011년과 2013년, 2015년의 SAT 자료와 수험생 부모의 납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SAT에서 고득점의 기준이 되는 1천30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의 가정을 소득별로 분류할 경우 상위 0.1% 가정 출신의 비율은 33%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하위 20% 가정 출신 학생이 전체 고득점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경제력 상위 0.1%는 연 소득이 1천130만 달러(약 152억 6천만 원) 이상이다.

또한 0.1% 가정 출신 학생만을 놓고 볼 때 SAT 1천300점 이상을 기록한 학생의 비율은 38%였다.

연 소득 61만1천 달러(약 8억2천만 원) 이상인 경제력 상위 1% 가정 출신 학생 중에서는 31%가 1천300점 이상을 받았다.



이에 비해 경제력 하위 20% 가정 출신 학생 중 1천300점을 넘긴 학생의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부유층 가정 자녀들이 유리한 교육환경 때문에 SAT 점수 등 학력이 높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존 프리드먼 브라운대 경제학 교수는 "상위 0.1% 가정의 수험생들에 대해서는 특수 사립학교와 세계여행, 대입 준비 교육 등 대학 학비보다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경제력 평가

로 변질한 SA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SAT 점수의 비중을 낮추고 자기소개서 등의 비중을 높일 경우에도 결국 SAT 고득점자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예 소득 수준에 따른 학력 차가 본격화하기 전인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저소득층 거주지역의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모기지 금리 23년 만에 최고...신청건수 28년 만에 최저

신규주택 판매량은 작년 2월 이후 가장 많아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에서 지난주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주 연속 상승해 200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주요 지표인 모기지 신청 건수는 2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이날,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지난주 평균 이자율이 7.9%로, 전주보다 20bp(1bp=0.01%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MBA의 조엘 칸 부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모기지 신청이 1995년 이후 최저로 감소했다"며 "이처럼 높은 모기지 금리가 주택구매 희망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고 재융자도 지속해서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수준에서 지난 7월 5.25~5.50% 수준으로 인상한 후 통화 긴축 캠페인을 잠시 중단했음에도 모기지 금리는 계속 상승했다.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이자율은 그 이후로 81bp 상승해 미국 장기 차입금리의 주요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9월 신규 단독 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12.3% 증가한 7만9천건으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전했다.

신규 주택시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

와 주택가격 상승에도 기존 주택 시장의 매물 부족으로 대체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주택 건설업체들도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 플루트그룹의 최고 경영자(CEO) 라이언 마셜은 "소비자의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 즉 구입 가격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품(주택)과 가격, 인센티브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금리 상승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인구조사국 등에 따르면 신규 주택의 판매 가격 중간값은 41만8천800 달러(약 5억5천만 원)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nadoo1@yna.co.kr



마이크 존슨 신임 미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원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친트럼프 신임 美하원의장, 이스라엘 지지 결의로 첫 행보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정보인 기자 = 마이크 존슨(51·루이지애나) 신임 미국 하원 의장이 이스라엘 지지 결의로 첫발을 내디뎠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취임 연설을 통해 "잠시 후 상정할 첫 번째 법안은 소중한 친구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데 너무 늦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 지지 결의안을 첫 안건으로 내세웠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하마스에 즉각적인 공격 중단과 인질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원은 이 결의안을 찬성 412표 대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재석'(present)으로 투표를 보류한 의원은 6명이었다.

반대표 가운데 9표는 민주당, 1표는 공화당에서 나왔다. 재석 6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반대한 의원 중 일부는 결의안이 팔레스타인의 인명피해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존슨 의장이 이끄는 미 하원은 조만간 법적 효력이 있는 법안을 다루게 되는데 가장 큰 현안은 긴급 안보 지원 자금 등 정부 예산 처리다.

백악관은 존슨이 새 하원의장으로

로 선출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 약 560억달러(약 75조원)를 의회에 긴급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한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및 중국 견제 등에 사용할 1천50억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존슨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깝고, 공화당내 다른 '친(親)트럼프' 의원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예산안 통과 전망은 보다 어두워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조건부로" 지지한다면 "우리는 책임을 원하고 백악관으로부터의 명백한 목표를 원한다"고 말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공화당 소속 4선 의원인 존슨을 신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케빈 매카시 전 하원 의장 해임 이후 3주 넘게 지속된 하원의장 공석으로 인한 하원 마비 사태가 끝났다. 학생들 간 입장 차이는 온라인상 언쟁으로도 나타났다.

stopn@yna.co.kr

충청 의료이 메디컬 투어 좋은사람들 www.jun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해의의료시업팀장 김수남

메인주 루이스턴 볼링장과 술집 2곳서 총기난사, 18명 사망

(서울, 보스턴=연합뉴스) 현윤경 김정은 기자, 편집부= 메인주 루이스턴에 있는 볼링장과 식당 2곳에서 25일 밤 한 남성이 자동 소총을 난사해 1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

NBC 방송과 폭스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자가 최소 22명이라고 전했으며, 루이스턴 시의회의 로버트 매카시 의원도 CNN에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으나 당국은 26일 18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다고 확인했다.

CNN이 제보 받은 영상에는 루이스턴 볼링장에서 놀란 사람들이 뛰쳐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루이스턴은 메인주 주도인 포틀랜드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중부의 작은 타운이며 인구는 약 3만6천명이다.

용의자는 40세의 로버트 카드(Robert Card)이며 아직 붙잡히지 않고 도주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앤드루스코건 카운티(Androscoggin County)의 주민들에게 집 또는 실내 대피소에서 대기하는 쉘터인 플레이스(Shelter in place) 명령을 발했다. 26일 루이스턴 모든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현지 경찰 당국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갈색 셔츠 차림에 소총을 든

백인 남성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공개했다.

또한 용의자의 차량 이미지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앞 범퍼가 검정색인 흰색 SUV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 병원 센트럴메인메디컬센터는 "의료진이 대량 사상자가 나온 총기난사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며 밀려드는 환자들을 받기 위해 지역 병원들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22명의 사상자가 확인되면 이는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에서 23명이 사망했던 2019년 8월 이후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한 이같은 사망자 수는 메인주 연간 살인사건 희생자 수에 육박하는 것이라고 NBC 방송은 전했다.

주 당국에 따르면 인구 140만명의 메인주 내 살인사건에 따른 사망자 수는 작년 29명, 2020년엔 20명이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총기난사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으며, 사건의 전개 상황이 대통령에게 계속 전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닛 밀스(민주) 메인 주지사와 통화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거리를 막고 있는 경찰들

붙였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사건 수사를 위해 메인주 치안 당국과 협조할 것이며, 경계를 늦추지 말고 수상한 사람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치안 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밀스 주지사는 별도로 낸 성명에서 치안 당국자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 정신적 문제 있는 사격 훈련 강사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메인 총기 사건의 용의자인 카드는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총기 훈련 강사였으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여름 2주간 정신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

악된 하얀색 SUV가 25일 늦은 밤 리스본에서 발견됨에 따라 경찰들은 이 지역의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소재 한 주민은 "우리는 이 같은 락다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40년을 살아왔지만 우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털어냈다.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ssachuset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The MA Problem Gambling Helpline 800-327-5050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결혼 축의금 얼마내나... "지인 평균 8만원 · 친한사이 17만원"

KB국민카드 분석... "혼수준비는 결혼 4~5개월 전 · 식사대접은 2개월 전부터"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은 얼마를 내는 것이 적절할까.

26일 KB국민카드가 고객 패널 '이지 토크'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고객들은 알고 지내는 사이에는 평균 8만원을 내고, 친한 사이에는 17만원을 낸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5만원 이하를 낸다는 응답이 53%였고,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를 내는 응답은 44%,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2%, 20만원 초과는 1%였다.

친한 사이에는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5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29%)를 낸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13%), 5만원 이하(3%), 30만원 초과(3%) 등 순이었다.

혼수를 기준으로 보면 3촌 이내 결혼식에는 축의금으로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43%),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27%)를 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4촌 이상은 평균 26만원을 낸다고 답했다.

축의금 준비 시 고려 사항으로는 '결혼식장 갈 때, 동반자가 있으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답이 76%, '식사비가 비싼 곳이면 축의금을 더 낸다'는 61%로 동반자 여부와 결혼식장 식대가 축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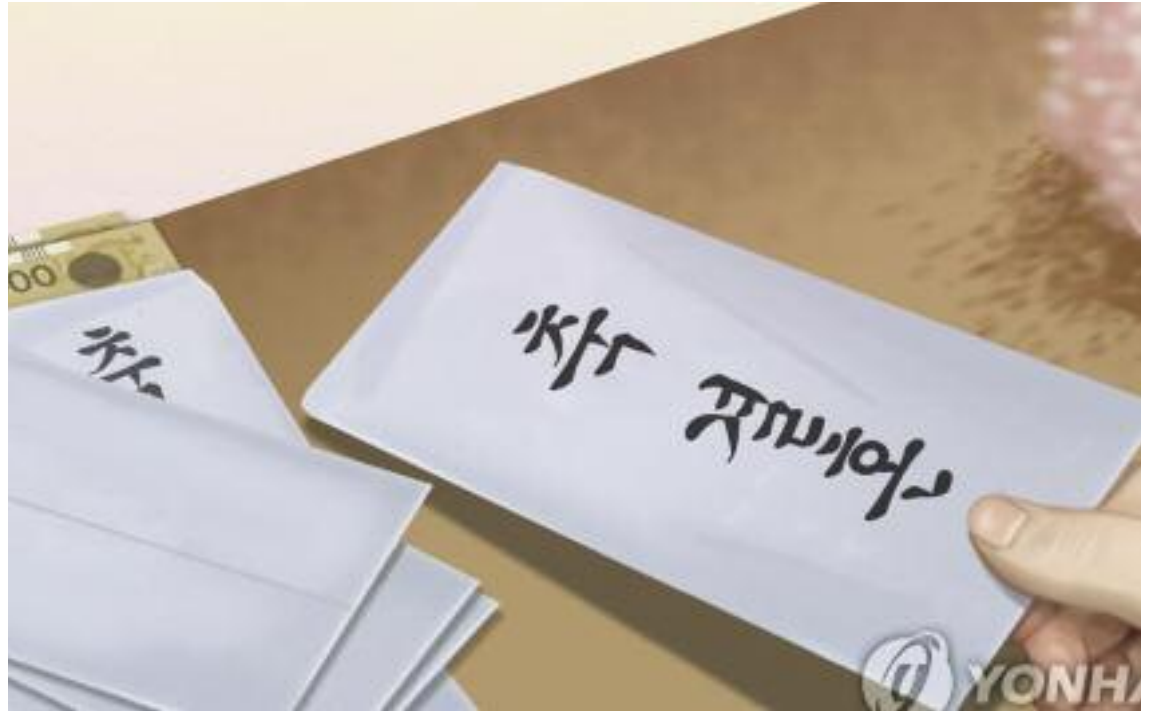
KB국민카드가 최근 1년 결혼식장에서 300만원 이상 결제한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회원의 음식점, 가구,

가전 관련 업종 매출 및 해외 매출 등을 분석한 결과 가구·가전 업종 매출은 결혼식 4~5개월 전부터, 결혼식을 알리는 인사로 추정되는 음식점 업종 매출은 결혼식 2개월 전부터 눈에 띄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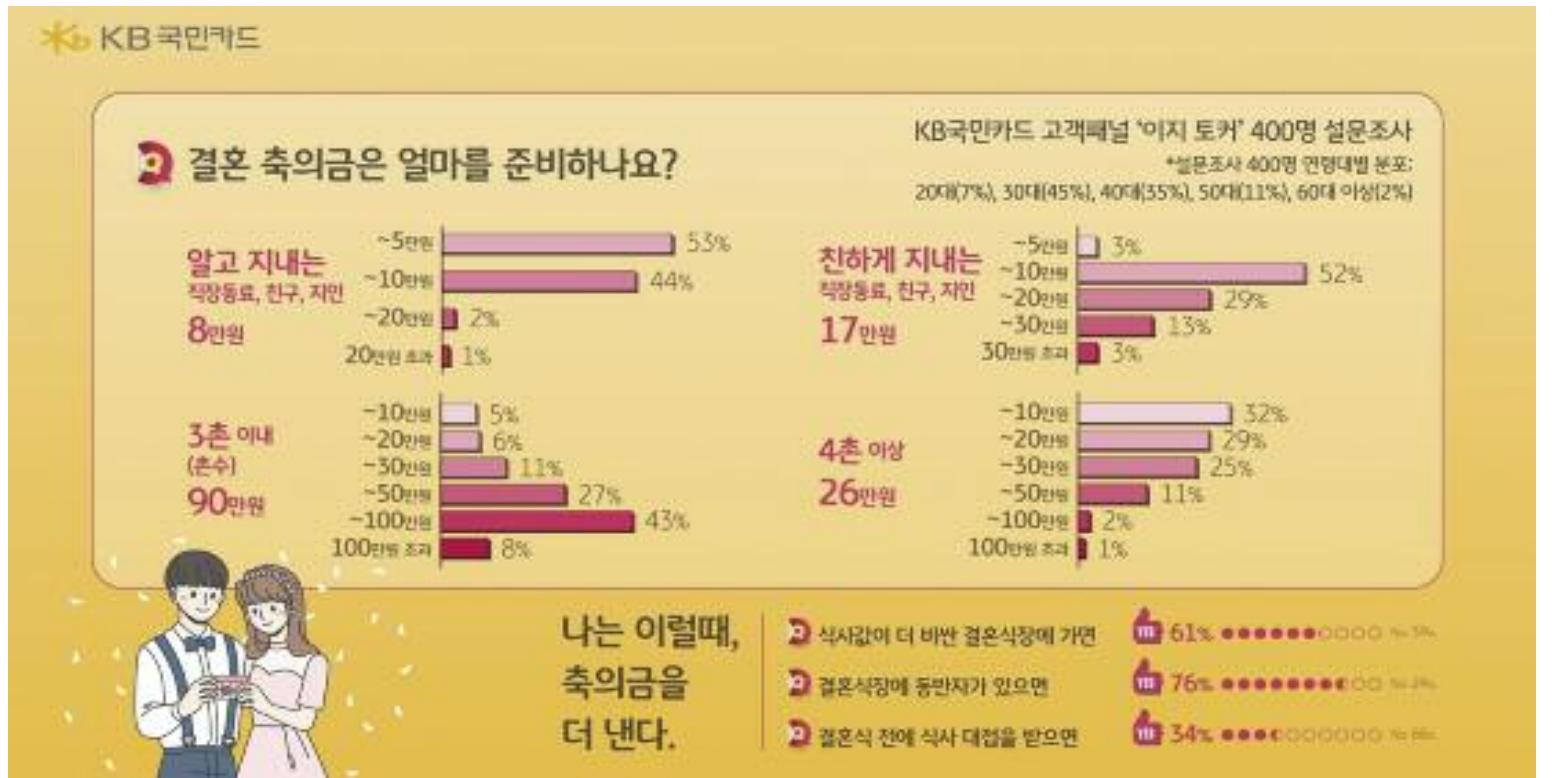
월별 음식점 매출 비중은 결혼식 당월이 13%로 가장 높았고, 결혼식 1개월 전 10%, 2개월 전 9%로, 결혼식과 가까울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신혼 여행지를 보면 해외가 80%, 국내(제주 포함)가 20%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로 신혼 여행을 가는 회원의 비중은 22년 1분기 58%, 2분기 47%로 높았으나, 3분기 32%, 4분기 28%로 줄어든 바 있다. srchae@yna.co.kr



결혼 축의금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OCT. 27th - NOV. 2nd, 2023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BOO-LICIOUS BITES: HAUNTED GHOST DUMPLINGS

With a juicy pork and vegetable filling, these little phantoms summon flavors from the beyond to give you a spooky touch to your Halloween menu. Dare to try them? 할로윈 파티에 맛과 모양으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해줄 귀신 만두를 H 마트와 함께 만들어보세요!



| | | | | |
|--|---|---|--|--|
| Korean Pear 한국 배 PRODUCT OF KOREA BOX \$34.99 | Packed Garlic 팩마늘 5 PCS/PKG \$1.99 | Yellow Papaya 옐로우 파파야 LB \$1.29 | Kabocha 단호박 LB \$0.99 | 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 |
|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 Pineapple 파인애플 EA \$2.99 | Ginger 생강 LB \$2.99 |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NEW CROP |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 | |
|---|--|
| Fresh Beef Heel Meat 생 소 사태 LB \$7.99 |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9.99 |
| Fresh Pork Single Belly 생 돼지 삼겹살 (수육용) CHUNK/LB \$6.99 | 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 |
| Frozen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LB \$11.99 | 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LB \$6.99 |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 | |
|---|---|
| Frozen Pollock 동태 500-900'S/LB \$1.99 | Frozen Beltfish 통갈치 700-1000'S/LB \$3.99 |
| Frozen Unagi Kabayaki 우나기 9 OZ/PKG \$9.99 | Frozen OCEAN Fresh Crab Sections 오션 절단 꽃게 2 LB/PKG \$9.99 |
| TONGTOMBAY Frozen Squid Tube 통통배 냉동 오징어 튜브 1 LB/PKG \$3.99 | Live Blue Crab 살아있는 꽃게 LB \$3.99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

SMART CARD MEMBER ONLY

| | |
|---|--|
| KOKUHO Extra Fancy Medium Grain Rice (Yellow) 국보쌀 옐로우 15 LB \$14.99 | HAIQ Japanese Style Noodles 해오름 우동면 2.75 LB \$2.99 |
| GREENLAND Rice Paper 그린랜드 라이스페이퍼 22 CM/12 OZ \$1.99 | TAI Mung Bean Vermicelli 타이 녹두당면 1.1 LB \$3.99 |

| | | | | |
|--|---|--|--|--|
|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마이 쌀 15 LB \$12.99 | RAW NATURE Brown Rice 자연담은 현미 15 LB \$13.99 | NONGSHIM Chapagetti Jajang Noodles 농심 짜파게티 4.5 OZ X 4 EA/PKG \$4.99 | CHUNG 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5.29 OZ \$5.99 |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 OZ \$16.99 |
| HAIOREUM Soy Sauce 해오름 간장 BREWED WITH KELP MADE TO STIR FRY 60.87 FL OZ \$3.99 | PULMUONE Thin Wrap Dumplings 풀무원 얇은피 팍찬속 만두 PORK & KIMCHI PORK & VEGETABLE 1.23 LB \$8.99 | CHUNGJUNGONE Fish Cake 청정원 부산어묵 SLICE/STICK/MIXED 2.2 LB \$6.99 | HAIOREUM GOMPYO Wheat Flour 곰표 CO-BRAND 밀가루 5.5 LB \$3.99 | HAIQ Canned Mackerel Pike 해오름 공치 통조림 14.1 OZ \$3.99 |
| LOTTE Milkis Carbonated Drink 롯데 밀키스 ORIGINAL 8.45 FL OZ X 6 EA/PKG \$4.99 | WOONGJIN Nature Is Pear Drink 웅진 자연은 배 50.7 FL OZ 2\$5 | GLASSLOCK Food Container Rectangle Set 글라스락 유리 밀폐용기 직사각 세트 3종 400 mL, 990 mL/1980 mL \$12.99 (was \$18.99) | SKINFOOD Black Sugar Perfect Essential Scrub 스킨푸드 블랙슈가 퍼펙트 에센셜 스크럽 3.52 OZ EA \$8.99 (was \$11.99) | LG Fabric Deodorizer LG 샤프란케어 섬유탈취제 FRESH/DELICATE/CITRUS 500 mL EA \$3.29 |

반찬단지 한국 인기 브랜드인 반찬단지를 H 마트에서 만나보세요!
 품질의 차별성과 기술의 바탕으로 고객의 식탁을 책임지는 반찬단지는 한국 전지역 전통시장 및 단체급식,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에 공급함으로써 맛으로 인정 받았으며, HACCP, ISO22000, FSSC22000 등에서 인증받아 더욱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2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 | | | | | |
|--|---|---|--|--|---|
|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lee@bostonpremierrealty.com |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김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skim@bostonpremierrealty.com |  팀장 한준희 ASSOCIATE DIRECTOR 617.586.9192 jwh@bostonpremierrealty.com |  매니저 캐시 김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ash@bostonpremierrealty.com |  매니저 크리스틴 김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ckim@bostonpremierrealty.com |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kshin@bostonpremierrealty.com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 | | | | | |
|---|--|---|---|--|---|
|  다예나 김 617.271.2037 dae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  율기 김 978.694.2043 yulgi@bostonpremierrealty.com |  니계 박 617.447.0501 nigye@bostonpremierrealty.com |  디디 주 617.780.7839 didi@bostonpremierrealty.com |  지나 김 978.886.3248 jinakim@bostonpremierrealty.com |  이은주 401.935.3397 eunjungkim@gmail.com |
|  세라 김 617.358.6787 seorakim@bostonpremierrealty.com |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kim@bostonpremierrealty.com |  현수 김 617.508.6973 hyeonkim@gmail.com |  마샤 김 213.503.0397 masha@bostonpremierrealty.com |  미키 김 413.607.1402 mikikim@gmail.com |  선광환 617.815.3268 sunghwan@bostonpremierrealty.com |
|  희민 김 617.877.0387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  이정준 781.899.3412 eejeonkim@bostonpremierrealty.com |  현숙 781.899.1214 hyeonkim@bostonpremierrealty.com |  지은 김 617.515.1162 jieunkim@bostonpremierrealty.com |  이정준 617.645.6728 eejeonkim@bostonpremierrealty.com |  희민 김 604.841.5102 heonmin@bostonpremierrealty.com |
|  Tammy Woolfolk 917.284.6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  Nancy Wang 617.230.8652 nancywang1988@gmail.com |  Shirley Zhao 867.20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  Vivian Yu 617.936.2715 vivianyu@bostonpremierrealty.com |  Xian Dole 413.622.8979 xiang777@gmail.com |  Lu Jiang 248.448.0117 lujiang1@gmail.com |
|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  Rebecca Phu 617.833.1003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  Michael Somma 978.873.0075 misha@bostonpremierrealty.com |  Linda Tu 86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  Lily Wang 617.938.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
|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wei@bostonpremierrealty.com |  빙센트 박 201.446.8995 vt11@bostonpremierrealty.com |  제이크 김 781.568.0409 jeike@bostonpremierrealty.com |  이성진 857.280.6434 isungjin@bostonpremierrealty.com |  Nimi Bolanger 413.257.1686 nimibolanger@gmail.com |  |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월연금액 첫 60만원대...집없는 청장년 4명중 한명 가입연금 없어

65세 이상 연금 수급률 90.1%...女 수급액 44만7천원, 男의 57% 수준
18~59세 연금 가입률 78.8%...월 보험료 32만9천원 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2021년 처음으로 60만원대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층 10명 중 8명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했지만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단 한개의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 통계는 기초·국민·지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주택연금 등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연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발표했다.

이번 통계에는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수준,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 등 연금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 연금 월 25만~50만원 받는 수급자 가장 많아...200만원 이상은 4.9%

2021년 기준 1개 이상의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776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 중 수급자 비율(수급률)은 90.1%로 집계됐다.

수급률은 2016년 87.0%를 기록한 뒤 매년 상승해 2021년 처음으로 90%를 넘어섰다.

연금을 2개 이상 받는 수급자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매년 상승세다.

2021년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0만원으로 전년(56만2천원)보다 6.7% 증가하면서 처음 60만원대를 기록했다.

2016년 42만3천원이었던 연금 수급액은 매년 4만원 내외씩 늘고 있다.

연금별 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은 월 38만5천원, 기초연금은 27만3천원, 지역연금은 24만9천원이었다. 지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가입 기간은 약 2배, 보험료는 약 4배까지 차이가 나 수급액이 더 많았다.

다른 연금을 포함한 총수급액을 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62만4천원, 지역연금 수급자는 25만4천원이었다.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을 받는 수급자가 43.3%로 가장 많았다. 25만원 미만은 21.1%, 200만원 이상은 4.9%를 차지했다.

성별 수급액을 보면 남성이 78만1천원, 여성이 44만7천원으로 여성 수급액이 남성의 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 수급자의 수급액이 71만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69만3천원), 서울(67만7천원)이 뒤를 이었다. 연금 수급률은 전남이 94.7%로 가장 높았다.

일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가입자의 수급액은 67만7천원으로 일을 하지 않는 가입자(57만원)보다 약 10만원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자 중 주택 소유자의 수급률은 90.5%로 무주택자(89.8%)와 비슷했다. 반면 수급액은 주택소유자(76만2천원)가 무주택자(47만2천원)보다 29만원 더 많았다.

◇ 연금 가입자 보험료 월평균 32만9천원 납부

2021년 기준 18~59세 청장년층 중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 비율(가입률)은 78.8%였다. 이 중 2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32.3%였다. 모두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4.1%로 미취업자(49.1%)와 큰 차이를 보였다. 취업자는 월평균 37만8천원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의 90.8%가 1개 이상의 연금에 가입했지만 무주택자의 가입률은 73.7%에 그쳤다.

연금 가입률은 남자(82.6%)가 여자(74.7%)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30~39세(85.7%)가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세종 가입률이 81.7%로 가장 높았고 제주(80.2%), 서울(80.2%) 등 순이었다. 세종은 월평균 보험료도 45만5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586만6천 가구로 전체의 95.4%였고 월평균 수급액은 77만1천원이었다.

18~59세 연금 가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1천515만2천 가구로 91.3%를 차지했고 월평균 보험료는 51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김지은 행정통계과장은 "연금 구조개혁, 고령화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번 통계가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어쩌나...새 연인 관련 의혹 일파만파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여자 펜싱 간판이었던 남현희(42)가 재혼 상대로 공개한 전청조(27) 씨를 둘러싸고 사기 전과·성별·신분 등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결국 결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께 남현희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수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가 남현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가족 집까지 찾아간 것으로 파악된다.

남현희는 지난 23일 월간지 여성조선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전 씨를 두고 교제해온 '남자 친구'라며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함께 참여한 전 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로 인해 은퇴한 승마 선수, 현재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정보통신 사업에 나선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후 전 씨에게 거짓 성별,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남자친구라던 전 씨의 성별은 경찰 조사 결과 여성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과거에도 이번 사태처럼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승적인 사기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5월과 10월에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전 씨에게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 씨가 승마 선수로 활동하며 다수 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이력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에는 그가 선수로 등록된 적이 없고, 승마계에도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이자 아시안게임 승마 금메달리스트 정유라 씨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랑 동갑이던데 또래 엘리트 선수는 아무도 전청조를 모른다"고 꼬집기도 했다.

2013년 전 씨와 이름이 같고, 외향이 비슷한 여학생이 한국직업방송 프로그램 중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소속으로 출연해 인터뷰한 장면이 10년 만에 다시 언급되는 등 의혹은 갈수록 커졌다.

이런 가운데 당사자가 이와 관련해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됐다.

결국 전 씨는 자신의 이력을 알게 된 남현희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 씨를 조사한 뒤 도주·

증거인멸 우려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현희는 2019년 은퇴하기 전까지 한국 여자 펜싱의 간판스타로 활약해왔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플리레 개인전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여자 펜싱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다.

아시안게임에서는 2002 부산 대회부터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까지 금메달 6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154cm의 단신임에도 서양 선수들과 세계 무대에서 맞서며 '땅콩검객'이라는 애칭도 붙었다.

2011년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둔 남현희는 최근 이혼한 사실을 지난 8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다.

당시 남현희는 "이혼이라는 게 좋지 않은 일이라 섣달 알리지 못했지만 늦게나마 소식을 전하게 된 게 기쁘다"며 "저와 딸아이, 가족에 진심한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남은 제 삶을 평생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고 밝힌 바 있다.

pual07@yna.co.kr





수잔리 부동산

“수잔 부동산은 미국 최고 부동산 회사 Keller Williams Group과 팀워크로 전문적 정보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분의 재산을 소중히 합니다. 오랜 부동산 거래 경험과 다양한 투자 노하우로 성공적 투자, 여러분의 재산 증식에 최선을 다합니다.”

셀러(Seller Representative):

리스팅 전문. CMA(Comparative Market Analysis)를 통한 집 가격 산정

바이어(Buyer Representative):

탁월한 협상. 전문적인 정보로 여러분의 재산 증식을 도모

투자(Investment):

전문적 부동산 마켓 인사이트 컨설팅으로 성공적 투자 컨설팅

* 조지아 아틀란타 투자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수잔리 부동산 대표

MA Licensed Realtor
CEO, The Pro Realty Group
CEO, 조지아 Keller Williams 수잔리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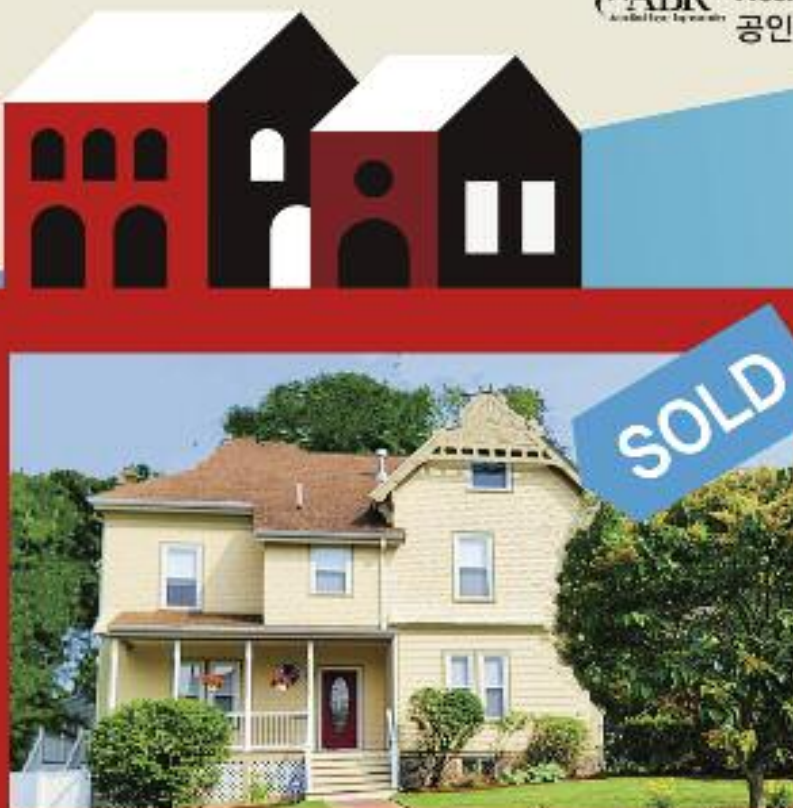
NAR(미 전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GBAR(보스턴 부동산 협회) 정회원
NAMAR(조지아 부동산 협회) 정회원
Multi Million Dollar Producer



CLHMS
Certified Luxury Home Marketing Specialist
럭셔리 홈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ABR
Accredited Buyer Representative
공인 바이어 전문가



NEW LISTING

PRICE: \$ 1,190,000

Newton Centre. Newton South High School,
역세권 걸어서 Green Line T 까지 5분,
방3, 화장실 2.5, 2790SqFt.

하숙, 홈스테이 비즈니스 최상 위치. 렌트 수익성 좋음.

TEL: 339.224.1512, 카카오톡 ID: susan 1223
Email: susan@prorealty.group Website: findhomesinma.net
245 First St. Cambridge, MA 02124

골프와 인생 9

박진영 (보스톤라이프스토리닷컴 대표)



11번홀: 골프 그리고 부부(夫婦)
 흔히들 골프와 부부생활이 비슷하다고들 한다. 왜일까? 전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것은 이 둘 다 내맘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골프가내가맘먹은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대로 다 된다면 그건 이미 골프가 아닐것이고 마누라가 잔소리 없이 내맘처럼 고분고분 따라준다면 이 역시 내마누라가 아닐것이다. 더욱이 골프라는 운동이 내맘대로 되지 않는 쉽지 않은 운동인데 거기다 와이프와의 동반 라운딩에는 골프 에티켓 이외에 와이프의 신경을 자극하지 않게 더 유별나게 신경을 써야하니 이게 말처럼 행복하고 쉬운골프는 아닌것이 틀림없다. 이처럼 내맘대로 잘 안되기 때문에 내맘대로 되게 하려고 온갖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골프와 부부생활이 비슷한것 같다.

자! 이제 이런 골프와 부부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열한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한다.

나의 부부동반골프소식을 들은 한 친구가 나에게 귀뜸을 해 준다. "와이프랑 아무 문제 없이 골프치려면 입을 굳게 다물되 입가에는 미소를 잃지 말고 과묵하되 나이스샷이란 말은 입에 달고 라운딩할것 또한 아래라 저래라 어설픈 잔소리는 금물이니 괜히 아는척 나서지 마라" 이것만 명심하면 부부간 즐거운 라운딩이 될것이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처음에는 "뭘 개소리야.. 와이프랑 재밌게 골프를 즐기면 되지 말조심하라니 골프는 몸으로 하는거지 입으로 하는것도 아닌데..." 그러나 친구의 조언은 진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고 요즘은 부부동반골프를 나간다는 친구에게는 내가 먼저 이 진리를 설파하고 나선다.

사실 부부와 함께 라운딩 하는것은 행복한

일이다. 모르는 사람과 예의를 갖추고 매너있게 골프를 즐기는것 처럼 와이프와도 매너를 지키며 골프를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와이프는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깝고 심지어는 나와 일심동체라는 그릇된 생각으로 에티켓과 배려 보다는 언제나 잔소리와 질책이 앞서게 된다.

솔직히 골프를 하다보면 가끔 자신보다 조금 실력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제가 어떻느니 스윙궤도가 어떻느니 한마디 하고싶어 입이 근질거리는 인사들을 만나게 된다. 한참 집중하고 라운딩을 하는데 이런 인사들이 끼어들어 한마디씩 해 보면 정신도 산란해지고 공도 잘 맞지 않는게 어떨때는 불쾌감마저 들 때가 종종 있음을 나는 잘 안다. 이런 행동이 상대의 플레이를 망치고 기분까지 상하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신기하게 와이프와 골프를 할 때면 이런 나쁜 매너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오래전 한국에서 친구와 함께 부부동반라운딩을 가진적이 있다. 미국에서야골프에 대한 접근성도 쉽고 부부끼리 라운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지만골프 부킹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처럼 쉽지않은 한국에서야 자주 있는 일은 아닐 뿐더러 더욱이 나같이 한달에 한번 친구들과 만나골프를 즐기고 그외에는 일 때문에 골프를 치는 주말골퍼에게는 어쩌다 한번 있는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드물고 어렵게 찾아온 부부동반라운딩을 활용해 부부간의 화목을 이루고자 집에서부터 온갖 부산을 떨며 산뜻하게 출발하지만 라운딩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경우가 흔히 있다.

이유가 뭘까? 내심 곰곰히 그날의 부부동반라운딩을 되새겨 보니 역시 주범은 그 잘난나

의 입에서부터 시작된것 같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참 골프에 열중해 있는데 이러니 저러니 잔소리를 해 대면 나 자신도 여간 신경쓰이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와이프의 샷 하나하나에 뭐 그리 해 주고 싶은 말이 많은지 연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떠들며 쫓아다니던 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얼마나 짜증이났을까? 잘한다고 칭찬은 못할 망정 골프를 왜 그리 치느냐고 핀잔만 줬으니 집에 오는길이 이정도로 끝난것 만도 감사해야할 지경이다.

골프 스윙을 포함한 골프의 모든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것이 아니다. 골프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스윙을 끝없이 만들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처럼 몸에 베인 습관이 말 몇마디로 고쳐질까? 더욱이 실전에서 그립을 바꿔 보라, 어깨를 턱 밑으로 집어넣어라, 허리를 이용해라 등등 임만 말해봐야실전에서 혼란만 주는 말들을 탄엔 신경써서 해 주는 금과옥조와 같은 조언인양해 데고 있으니 이는 와이프를 배려하는것이 아니라 그날의 라운딩을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한 행동밖에는 되지 않는다.

굳이 아내에게 조언하고 싶다면 라운딩 전에 "여보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기분으로 맘편히 라운딩해"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라운딩 중에는 "굿샷! 와! 잘치는데 언제 그렇게 실력이 늘었어" 하고 칭찬만 해주면 된다. 한 샷 한샷으로 엮여지는 라운딩에서 질때 마다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것은 아내의 게임에 리듬을 흐트러트리니 내 스스로에게도 스트레스만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진짜 조언은 게임이 모두 끝난뒤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또는 연습장에 같이 갔을때 "여

보 그때 이렇게 한번 해 보지 그랬어? 그날 보니 백스윙이 좀 내려왔더라 등 진지한 마음으로 그날의 플레이를 함께 되새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이다.

부부생활도 마찬가지로이다. 수십년을 다른 환경에서 자라다가 어느날 갑자기 눈에 불뚱이 튀어 만난 두 사람이 모두 자기맘 같지 않은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십년간 몸에 벤 습관을 잔소리 몇마디로 고쳐지기를 바라는것 자체가 무리인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번 서로가 잔소리를 해 대며 왜 그렇게 못하냐고 투정하고 싸우기 일쑤다. 단엔 내 남편이, 또는 내 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정성을 다한 조언을 해 주는양 하지만 순간순간의 행동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것은 조언이나 배려가 아닌 지적질로 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진짜 고쳐지길 바라는게 있다면 순간순간의 행동에 대고 잔소리 하지 말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또는 포장마차에서 소주한잔 같이 하면서 "이러는게 어때? 저러는게 어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게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마치 골프에서 라운딩 순간순간 지적질 분위기 함악해지지 말고 라운딩 후 차분이 이야기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것 처럼 ...

천금같은 조언과 충고에도 다 때와 장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해 주는 조언일지라도 때를 잘못맞추면 독이 된다는 사실,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부부사이에서는 이 때와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UNITED STATES GOLF TEACHERS FEDERATION
 Leader in the Field of Golf Instruction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제 3회 NE지역

동해 · 독도

지명표기

조사 · 활동보고 공모전



공모 주제

- 뉴잉글랜드 지역 교과서, 공공 장소 지도, 출판물, website 등에 표기된 동해 (East Sea), 표기 실태를 조사 후 체험 활동 및 개선 결과 소개
- 독도 표기 실태 및 영유권에 대한 현재 문제를 알리는 활동 및 개선결과 소개
- 사이버 민간 외교관으로서 활동 내용
자세한 사항은 구글 신청폼 참조

학년별 공모 작품유형

- K-2학년: 그림일기 내용 30-100자
- 3-5학년: 포스터 12x18인치 100-300자
이미지와 핵심문구는 포스터에 담고, 내용 글은 별도 제출
- 6-8학년: 에세이 12 font, double space, 2 페이지 이상
- 9-12학년: 보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파일형식 mp4, 본인 얼굴 2/3 이상 삽입, 최대 5분, 저작권 위배되는 음악 삽입 불가
- 교사: 수업내용 보고서 (자유형식)

일정

- 신청등록마감 2023.10.08
- 작품제출마감 2023.11.04
- 시상식 2023.12.02 동요합창제 직전
보스톤 한인 교회

시상내용

- 전체 대상 '나라사랑(총영사상)' 1명
- 부문별 대상 '동해지킴이상, 독도지킴이상'
- K-12학년별 금상, 은상, 동상
- 전체 대상 배출 학교 시상
- 교사 수업내용 보고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참가자 전체 시상

참여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K-12학년
- 개인 참여원칙(개인당 1 작품 참여)
- 외국인 친구와 참여할 경우 특별 시상
- 지도 교사 (신설)

심사기준

- 교과서, 지도, 출판물, 지역, 공공장소, website 등 조사 및 시정 노력
- 시정 결과
- 주제 적합성 (내용 이해 및 활동 확장성)
- 작품 완성도

접수방법

- Google form 접수(오른쪽 상단 QR 코드)
- 접수문의 naksne.secretary@gmail.com

주최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후원



외교부



NAKS-NE
이사회 및 교장단



주보스톤총영사관

보스톤 **코리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60) 주식 투자 정보와 지식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Warren Buffett) 과 찰리 멩거(Charlie Munger)는 주식 투자에 관하여 우육같은 조언과 지혜를 오랜 기간 나누었다. 그중 하나를 소개하면 ‘그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능력 범위에 벗어난 정보 등은 무시한다.’ 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버핏과 멩거’ 이다.

일반 투자자는 본인의 소중한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 금리와 주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 전체 주식 시장의 과대평가 여부 • 어떤 개별 종목이 시장을 이끌 것인가 • 어떤 펀드 매니저가 어떤 펀드 매니저를 능가할 것인가 • 물가 상승과 주식시장 관계는 • 정치와 경제 방향은 등 끝이 없다.

미국에 이민 와서 생업에 종사하며 매일 쏟아지는 경제, 사회, 정치, 기업, 주식, 등의

정보를 이해한 후 투자 결정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주식 투자에 관한 조언 중 하나는 ‘주식 공부’ 하라고 말한다. 대학에 가서 투자 강의를 등록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개별경제 데이터 포인트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등의 지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늠하는지 흥미로운 정보이다. 광범위한 경제 동향을 엿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개별 데이터 포인트는 그 시점 기준일 뿐이고 노이즈(Noise)일 수도 있다. 이런 정보는 개인의 주식 투자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단기 시장 예측

단기 예측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러한 예측이 단지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니라 지분평가, 배당 수익률, P/E 확

장 또는 축소에 대한 기대, 등을 냉정하게 고려해도 시장은 몇 달 혹은 일 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과대 또는 과소평가 상태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기 예측은 CNBC에서 수다를 떠는 것 외에 다른 유용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업의 성장과 발전

2020년 팬데믹으로 주식 열풍일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 주식 전문인이 테슬라의 ‘배터리의 날’ 최고경영자의 말을 밤새워서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회사 경영방침 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한다. 주식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실현성이 없는 조언이다.

회사의 경영방침, 경영인의 마음가짐, 경쟁사, 영업보고서, 전략, 시장지배력, 자산, 빚, 수익성, 대차대조표, 부채비율, 등을 파악해도 미래의 기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기업을 방문해도 회사의

운명은 알 수 없다. 회사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누가 이런 사실을 말하겠는가? 사실을 안다고 해도 미래의 운명을 가늠하기는 어렵다.

어떤 빚을 먼저 갚아야 하는지, 어떤 집을 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주택융자금을 빨리 갚아야 하는지,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원금 보장한다는 투자상품의 진실이 무엇인지, 투자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얼마인지, 아이들 학자금 마련이 무엇인지, 신용 등급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 은퇴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계획하고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금융 생활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일반 투자자는 정치, 경제, 기업 뉴스에너무 집중하면 위험하다. 투자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소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며 오히려 일시적 현상에 주의가 산만해져 실패하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2)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2세 풍월주 미진부가 아버지이며, 묘도가 어머니인 미실은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은 태몽으로 출생하였다. 어느날 범흥왕이 박영실(45) 과 궁궐 안에서 추구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잠에서 덜깬 눈과 엉크러진 머리를 한 후궁 옥진궁주가 다가오더니, 왕의 손을 이끌며 잠자리를 청하였다. 놀란 왕이 그 연유를 묻자, 옥진은 “좋은 꿈을 꾸었는데 반드시 귀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이 무슨 꿈이냐고 물으니, 옥진은 이어서 “칠색조七色鳥가 가슴으로 들어 왔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범흥왕은 웃으면서 “7색은 섞인 것이고 새鳥는 여자다. 빈첩嬪妾의 조짐이다. 네 지아비와 더불어 동침하라” 고 했다. 옥진은 기쁘지 않아 영실과 잠자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이 다시 말하기를 “네 지아비와 나는 일체이다. 아들을 낳으면 곧 태자로 삼고 딸을 낳으면 곧 빈嬪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새처럼 해 있던 옥진은 왕의 약속에 밝게 웃으며 기뻐하더니 이윽고 지아비 영실의 손을 잡고 장막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그날 나눈 사랑의 결실로 과연

범흥왕의 예견대로 여아가 태어났다. 옥진은 왕을 신이라고 여겨 아이의 이름을 묘도妙道라고 지었다. 묘도가 자라자 범흥왕은 약속대로 그녀를 후궁으로 들여 사랑을 했다. 그런데 작고 좁아 맞을 수가 없었다(아마도 아주 어린 나이에 후궁으로 들인 것 같다). 또한 왕의 양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묘도는 저녁이 되면 몹시 괴로웠다. 결국 왕은 묘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무렵 미진부는 어머니 삼엽궁주를 따라와 늘 대궐에서 지내면서 외할아버지 범흥왕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고 때때로 소일을 보좌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머무른 곳은 묘도의 전殿을 사이에 두고 있었다. 묘도는 늘 미진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장성해가는 그의 능률한 모습에 매료되어 갔다. 어느날 미진부가 자신의 전각앞을 지나가는 것을 기회로 묘도는 그를 끌어들이려 상통했다. 서로 잘 맞아 부부가 되기를 맹세했다(원문에는 부부라는 단어는 없다. 다만 탈자가 되어 있어서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문맥상 부부로 볼 수 있다). 한편 500년 범흥왕이 사망하자 지소태후(진흥왕의 어머니)는 섭정을 하였고, 그녀는 아시공(미진부의 아버지)과 가까이 하고자 미진부와 묘도의 결혼을 허락하였다.45)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옥진궁주가 꿈에 칠색조가 자신의 가슴속에서 날아 묘도에게 들어가

는 것을 보았다. 놀라 일어난 옥진은 꿈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겨져 묘도의 침실에 가서 엿보았다. 그때 묘도와 미진부가 바야흐로 합궁을 하고 있었다. 옥진은 이에 기뻐서 알려주며 “너희 부부는 이제 귀녀貴女를 낳을 것이다” 했다. 과연 옥진의 예견대로 달이 차서 여아를 낳았다. 그녀가 미실美室이다.

미실은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녀는 용모가 절묘하여 풍후함은 옥진玉珍을 닮았고, 환하게 밝음은 벽화碧花를 닮았으며, 빼어나게 아름다움은 오도吾道를 닮아서 백화百花의 신묘함으로 뭉쳤고, 세 여인의 아름다운 정수를 모두 모았다.

옥진은 미실의 어머니의 어머니로 외조모이다. 벽화는 미실의 할머니 삼엽궁주의 어머니이다. 오도는 옥진의 어머니이다. 옥진, 벽화, 오도 세 여인 모두 당대에 으뜸가는 미인이었다. 그런데 미실은 백가지 꽃의 신묘함과 가장 아름다웠던 세 여인의 우성 유전자만 물려 받았으니 그녀의 아름다움은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옥진은 “이 아이는 우리의 도吾道를 일으킬 만 하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오도吾道’ 는 옥진의 어머니 오도의 아름다움을 다시 이어간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들의 인통統統인 ‘대원신통’ 이 왕실과의 혼인을 독차지 하여 이어가겠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옥진은 미실을 끼고 ‘교태부리는 방법(미도嬌道

)’ 과 가무歌舞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45) 박영실은 범흥왕의 생질甥姪이다. 즉 왕의 누이 보현공주의 아들이다. 또한 범흥왕이 가장 총애했던 총신이었고 말년에는 왕위를 물려주려고도 하였다. 게다가 박영실이 혼례식을 하던날도 참석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신부의 미모에 빠진 범흥왕은 그녀를 후궁으로 삼고 말았으니 그녀가 바로 옥진이다. 범흥왕은 옥진과 함께 낳은 서자 비대比臺에게로도 왕위를 이으려고 했지만, 옥진의 아버지 위화랑과 적녀 지소와 서녀 삼엽궁주(미실의 할머니) 등의 반대로 결국 차기 왕위는 지소의 아들인 김삼맥종에게로 이어졌다. 그가 제24대 진흥왕이다.

46) 지소태후가 아시공과 가까이 하고자 한 것은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섭정을 잘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세력을 규합하고자 이복동부 자매인 삼엽궁주의 남편인 아시공의 힘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소는 51년까지 섭정을 했다. 또한 원문에는 탈자가 되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문맥상 지소태후가 미진부와 묘도의 결혼을 허락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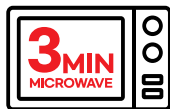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OCT. 26th - NOV. 8th, 2023



Crave It,
Enjoy it



11:45 Frozen Vegan Kimbap

11:45 냉동 비건 김밥

ALL VARIETIES/7.76 OZ

\$2.99

OCT. 26th - NOV. 2nd, 2023

HELLO KITTY Ultra Soft Bath Tissue

헬로 키티 화장지

\$12.99

30 ROLLS
/PKG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Law)

내가 칼럼을 쓰면서 자주 영어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한국말이 더 편하신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할 때가 많다. 어떨때 번역을 하려고 해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영어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 때가 많다.

그리고 나는 자랑스러운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와 미아시아부동산협회(AREAA, Asian Real Estate Association of America) 임원이었고 회원이다.

이 두개에 단체를 통해서 나는 진정한 부동산쟁이가 뭔가를 배웠다.

그냥 집만 파는 게 아니라 “왜” 집을 팔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었다.

한사람의 힘보다는 단체에 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미국에서 50년 이상을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래 전에는 집 사는 게 소수민족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미국 영어로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걸 번역하면 모든 민족이 모인 곳이라는 뜻이다.

근데 왜 오래전에는 소수 민족이 집을 사는 게 평등하지 않았을까?

AREAA에 초대 회장, 앨런 오칸도(Allen Okanoo)의 말을 빌리면 “내 아버지는 1955년에 샌프란시스코 부동산협회에 회원이 되기를 원했는데 거부당했다. 일본인 혈통이라는 이유였다. 그리고 난 1990년도에 첫 동양인으로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협회에 회장이 되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AREAA를 꼭 시작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하는 이유이다.” 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AREAA 2023년 대회 기념 잡지에 있는 내용이다.

난 12살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 온 1.5세에 부동산 중개인으로 중개를 할 때마다 항상 많은 점을 느낀다. 과연 인종 차별은 없을까? 근데 중개인으로서 꼭 우리가 차별을 당한다고만 이야기 할 수는 없다. 우리도 대우를 받으려면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럼 바르다는 게 뭐냐? 두 문화를 다 이해하는 내가 하는 일이 이것이다. 중간에서 소통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미국에는 부동산 법이 있다. 부동산법에는 다 다른 인종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Law)라는 게 있다. 여기에는 인종뿐만 아니라 종교

, 성별, 또한 자녀가 많은 분들까지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한국 분들도 절대로 여기에 어긋나는 내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한국 분들이 이 내용에 이해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대우를 받으려면 대우를 받게 행동해야 한다. 영어 보다는 내 경험에 문화에 이해 차이가 더 많았다. 한국말과 두 문화를 이해 잘하는 중개인을 꼭 만나시길 바란다. NAR 이나 AREAA에 첫째 미션은 모든 사람들이 집을 얻는데 불편함 없이 집을 구하게 해 주자는데 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얻으시는 분들에게 저소득 주택(Low Income Properties, 어포더블 하우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여러 회원들이 정부에 알리고 또 첫주택구입자(First time buyer)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Loan)을 받도록 도와 주는 게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이다.

그랜트(Grant)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다운페이먼트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랜트(Grant)를 받도록 정부와 함께 일하는 것도 이 두 단체가 하는 일중에 하나다.

부동산 법이 공정하지 않은 부분도 이 두 단

체에서 바르게 잡도록 의견을 정부에 전한다. 지난 20년간에 이 두단체에 일을 하면서 비영리 단체에 힘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알게 되었다. 우리 한국분들도 비영리 단체에 미션에 동의 한다면 한번쯤은 다 함께라는 큰 힘에 참석 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10월 29일 - 11월 4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 | | |
|---|---|---|
| <p>쥐띠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p> <p>● 운수: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생활 속 여러 면에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변화가 뜻밖의 행운을 몰고 오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 금전: 매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얻는 것도 많아지니 여러 가지 부담감에서 벗어납니다. ● 애정: 생각지도 않은 즐거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소개를 받는 자리는 마다하지 말고 꼭 만나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9, 3일 길일. 30, 31일 주의.</p> | <p>소띠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p> <p>● 운수: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간 거리만큼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되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금전: 손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말만 듣거나 광고에 현혹되어 사들이면 금방 후회하게 되니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사야 할 것입니다. ● 애정: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아니니 표정 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30, 2일 길일. 31, 3일 주의.</p> | <p>범띠 감사하는 마음으로</p> <p>● 운수: 자신이 마음먹고 생각한 대로 일이 순조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 두루두루 살피고 배부는 여유도 생깁니다. 자그마한 성의 표시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아끼고 아끼던 말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랑 고백을 해보세요. 서로의 마음이 합쳐질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31, 4일 길일. 29, 1일 주의.</p> |
| <p>토끼띠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p> <p>● 운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게 보낼 것입니다. ● 금전: 원하던 것을 원하는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도 유리한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모처럼 집안에 온기가 듭니다. 함께 웃으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 더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1, 1일 길일. 30, 2일 주의.</p> | <p>용띠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p> <p>● 운수: 자신이 쓰고 있는 말을 한 번 살펴보세요. 말이 싸가 되는 것이니 현재 상황이 힘들더라도 잘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 합니다. ● 금전: 이래저래 나가야 할 것이 많으니 돈 문제로 잔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 애정: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라도 편을 들지 말아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29, 2일 길일. 31, 3일 주의.</p> | <p>뱀띠 냉철하게 살펴보고</p> <p>● 운수: 귀가 알아져서 이 치료 저 치료 따라가다가는 오히려 상태가 악화하니 조심해야 합니다. ● 금전: 현금 흐름을 잘 살펴봐도 하세요. 자신의 자금 상태를 냉철하게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게 되더라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양보하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30, 3일 길일. 1, 4일 주의.</p> |
| <p>말띠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p> <p>● 운수: 자신이 보고 듣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넓디넓은 세상을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금전: 애착은 안심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된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는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애정: 먼저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부부가 화북하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제보다 더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주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31, 4일 길일. 30, 2일 주의.</p> | <p>양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p> <p>● 운수: 말을 전하려면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세요. 잘못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금전: 뭔가 조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 애정: 누구든지 자신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울고 그르를 떠나서 자신의 방식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91, 79, 67, 55, 43, 31년생은 1, 4일 길일. 31, 3일 주의.</p> | <p>원숭이띠 크게 지지개를 피고</p> <p>● 운수: 새우잠을 자는 형상처럼 잔뜩 움츠렸던 상태에서 벗어나십시오. 크게 지지개를 피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전: 자신을 늘릴 좋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언젠가 뿌려놓았던 씨앗이 귀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애정: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소망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31, 2일 길일. 1, 4일 주의.</p> |
| <p>닭띠 밝고 환하게 웃는</p> <p>● 운수: 어디를 가든지 밝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대하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일의 능률이 오를 것입니다. ● 금전: 나가는 것이 있어도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아서 충분히 채워줄 수 있습니다. ● 애정: 기대해도 될 만한 상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싱글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위를 잘 살펴보면 운명의 짝이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9, 3일 길일. 30, 2일 주의.</p> | <p>개띠 훌훌 털어버려야</p> <p>● 운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세상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 조금만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 금전: 돈에 연연하다가 도리어 병이 되니 훌훌 털어버리세요. ● 애정: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왜곡해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4일 길일. 30, 3일 주의.</p> | <p>돼지띠 미리 대비를 해두는</p> <p>● 운수: 자신만 부족하고 자신만 처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자기만의 처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계획대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자꾸 지연되기 쉽습니다. 미리 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애정: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 3일 길일. 29, 4일 주의.</p> |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치매 걸리신 아버님 파트타임 도와주실 분 나이 많으시며 치매있으신 웰슬리(Wellesley, Ma)에 사시는 저희 아버님을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joint@sent.com 으로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24년 전 '나라슈퍼 사건'으로 한국 사회를 보다...영화 '소년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라는 작은 가게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

이들은 가게 안에 있던 할머니를 포함한 세 명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가리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숨이 막힌 할머니는 목숨을 잃었다.

사건 직후 경찰은 19~20세 남성 세 명을 범인으로 지목해 입건했지만, 이들은 진범이 아니었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강요를 당한 이들이 허위 자백을 한 것이다.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이들은 2015년 재심 사건 전문가인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 한 명의 양심선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부실·조작 수사를 했는지도 드러났다.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영화로 조명해 온 정지영 감독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었다. 그의 신작 '소년들'이다. 이 영화에서 '나라슈퍼'는 '우리슈퍼'로 나온다.

'소년들'은 실화를 토대로 하지만, 극적 효과를 위해 허구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했다. 경찰 내부에서 우리슈퍼 사건의 재수사를 밀어붙이는 주인공 황준철(설경구 분)의 존재가 대표적이다.

우리슈퍼 사건이 마무리된 지 1년이 지나 완주경찰서 수사반장으로 부임한 황준철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고 이 사건의 수사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다.

그는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지만, 얼마 못 가 난관에 부딪힌다. 부실·조작 수사로 무고한 소년 셋을 감옥에



보낸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최우성(유준상)이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다.

이 영화는 황준철과 최우성을 내세워 경찰 내부의 대립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수사 기관의 문제를 드러낸다.

황준철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돈키호테와 같은 인물이다. 내적 갈등도 거의 없이 일관적이라는 점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최우성은 권력 기관의 조직 논리를 대변한다. 그는 황준철에게 "조직에 통칠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경고한다.

우리슈퍼 사건의 재심이 펼쳐지는 영화 후반부는 법정 영화의 성격을 띤다. 이곳에서 황준철과 최우성의 대립을 넘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립 구도가 드러난다.

법률 지식은 고사하고 글도 못 읽는 탓에 경찰의 강압 수사에 물러 죄를 덮어줄 수밖에 없었던 소년들과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우성의 법정 공방은 우리 사회의 약자와 강자의 대립을 보여준

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소년들과 유려한 논변을 펼치는 최우성은 서로 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결국 소년들이 울부짖음으로 마음속의 억울함을 터뜨려내면서 깊은 울림을 낳는다.

이 영화는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슈퍼 사건이 발생한 1999년과 황준철이 재수사를 시도하는 2000년, 좌천됐던 그가 다시 사건을 파헤치는 2016년을 뒤섞는다.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무거운 분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 영화에 경쾌한 기운을 부여하는 건 황준철을 믿고 따르는 후배 형사 박정규(허성태)와 황준철의 아내 김경미(염혜란)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을 통해 악역의 이미지가 강한 허성태는 이 영화에선 밝고 긍정적인 역할로 웃음을 자아내면서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설경구와 염혜란의 티키타카도 코믹한 장면들을 만들어낸다.

세븐틴 "최고향한 일념에 씬없이 달려...성공했어도 마음은 같죠"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세븐틴은 늘 '최고가 되겠다'고 많이 말해왔잖아요. 그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을 향해 달려왔어요" (디노)

그룹 세븐틴은 23일 열한 번째 미니음반 '세븐틴스 헤븐'(SEVENTEENTH HEAVEN) 발표를 기념한 신보 소개 영상에서 "씬없이 달려온 끝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순간인 '세븐틴스 헤븐'이 펼쳐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되돌아봤다.

이들은 "이 행복한 순간을 모두가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다"며 "(타이틀곡) '음악의 신'으로 국민 대통령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노래하고 춤추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세븐틴스 헤븐'은 '더할 나위 없이 매우 행

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 '세븐스 헤븐'(Seventh Heaven)을 세븐틴만의 의미로 바꾼 것이다. 멤버들은 이번 앨범을 통해 지금까지의 노력과 결실을 팬과 함께 축하하며 새로운 앞날을 그렸다. 음반에는 타이틀곡 '음악의 신' 등 여덟 곡이 수록됐다.

세븐틴은 지난 2015년 데뷔 이래 밀리언셀러를 잇달아 배출하며 한국과 일본은 물론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부상했다. 지난 열 번째 미니음반 'FML'은 발매 첫날 300만장이상이 팔려나갔고, 누적 판매량 620만장으로 K팝 단일 앨범으로는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번 신보 역시 전주누량만 520만장으로 집계돼 신기록 달성을 예고했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

삶은 어쩌면 이리 단순한지도 모른다. 자연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절에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일 말이다. 자연을 보면 참으로 많이 배운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제 모양과 제 색깔로 꽃피우고 열매 맺고 제 역할을 다하고 돌아간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복잡하지 않은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에 이것을 해야 하나, 저것을 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한다. 느닷없는 불청객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도둑처럼 찾아왔다. 일상을 뺏기고 우울한 날의 연속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된 우리는 그에 따른 또 새로운 삶을 맞아야 한다.

우리 부모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시대를 요즘

이들은 살아간다.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다중작업', '다중과업화'는 현대에 얼마나 필요하고 적절한가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단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빨리 선택하고 결정하고 버려버리는 것들이 그중의 하나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좋으면 빨리 친해지고 너무 가까워져 싫증 나면 생각할 시간 없이 빨리 헤어져 버리는 일 말이다. 물론, 각자의 삶에 있어 각자의 선택이며 정해진 정답은 없다.

삶이 너무 바쁘다고 생각될 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무엇인가 신경쓰이는 일이 있을 때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를 깊은 호흡으로 읽어보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 너무도 짧은 시 그러나 참으로 심오한 시, 깊은 생각과 호흡으로 만나야 하는 귀한 시편이다. 그렇다, 작은 풀꽃들을 자세히 들여다본 일이 있는가. 그 작은 풀꽃을 시간을 내어 오래도록 바라본 일이 있는가. 들꽃 들

꽃도 이렇진대 사람 꽃이야 얼마나 더 예쁘고 사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가까이에 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도 쉽게 무심함으로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본다.

2017년 9월에 한국에서 '시와정신국제화센터' 오픈 행사가 있었다. 그 문학 행사에 참여했다가 나태주 시인을 뵈는 적이 있다. 작은 체구에 굽직한 선의 인상 특별히 서글서글한 눈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어른을 보니 젊은 글쟁이들이 환호성으로 반긴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참석한 문인들이 30여 명이 되었으니 더욱이 뵈기 어려운 분이 아니던가 말이다. 옆집 아저씨 같은 신편안해 보이는 시인은 당신의 시집 하나씩을 미국에서 참석한 문인들에게 사인해서 선물해 주신다. 그리고 당신의 시편 하나를 골라 낭독해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참으로 편안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시편이 아니던가. 특별함이란 이렇듯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들이 아니던가. 다만, 그 평범함 속에서 소중함으로 받

아들이고 귀함으로 맞이하는 마음일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다. 꾸미지 않아 편안한 소박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작은 것들을 소홀히 대하기 쉽고 쉬이 지나치기 쉽지만, 작은 것에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만날 수 있는 까닭이다. 그것을 통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까닭이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한 번쯤 다시 읽어 보고 가슴에 새기며 소중한 일상과 가까운 사람과 자연(들꽃과 들풀들)들을 생각하며 심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주변의 텃밭이나 야산을 산책하며 흙내를 맡을 수 있다면 더 없을 축복일 것이다. 또한, 다른 이의 영혼의 세계를 산책할 수 있는 시편들을 만날 수 있다면 함께 소통하며 간접적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문득, 나태주 시인의 '풀꽃' 시가 생각났다. 그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기억하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중년에게 가을은 난감하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생각때문이다. 그나마 오랫동안 푸른하늘이 보였고, 날은 건조하고 청명하니 위안일 뿐이다. 가을은 깊어갈텐데 보스톤엔 내일도 오늘처럼 맑고 선선한 날이 계속될 것인가. 좋은 날씨도 매일 계속되면 지루할까?

밥같은 시를 쓰고 싶다. 시 제목인데 시인의 욕심이 소박하다. 몇줄 소개한다.

시인 공복의 손으로
밥술을 열 때 만나는저 지순하고 뜨거운

한 사발의 찰진 육망그득히 고봉으로 퍼담는아, 밥 같은 시 쓰고 싶다(서숙희, 밥같은 시를 쓰고 싶다 중에서)

밥 먹는 일이야 지루할 틈이 없다. 그래서 일까. 저녁 메뉴는 매일 다르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저녁과 다르다는 말이다. 그러나 어제 저녁 메뉴로 뭘 먹었는지 가물거릴 적이 있긴 하다. 별식이 아닌바에는 매번 먹는 밥이란 생각 때문일까. 아니면 기억력이 문제일까. 하긴 지난 저녁에 무얼 먹었는지 시시콜콜 기억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교회 장로님이 물었다. 자동차를 박

살냈다면서요? 질문에 당혹스러웠다. 아니 내가 차사고 낸 것을 어떻게 아셨던가. 소문이라면 빠르기도 하다 싶었던 거다. 내가 먼저 실토했던 기억은 없었다.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돌아온 대답이었고, 대형사고도 아닌데 신문에도 보도되나? 아뵐사. 장로님은 보스톤코리아 줄문을 읽으셨던 거다. 줄문에 자동차 사고를 슬쩍 밀어 넣었는데, 이걸 내가 깜빡했다. 내 시원치 않은 기억력 탓이다.

주치의를 만나면 묻게 있다.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가?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인데. 역시 노화방지에겐 움직임과 꿈지락이

먼저가 아닌가 한다. 운동은 깜빡증세에도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다.

김모씨가 저녁으로 뭘 먹지는 신문에 나지 않는다. 장로님도 묻지 않았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24:6)

사진은 2002년 6월 22일자 한국신문 일면이다. 전날 저녁 한국 축구팀은 포르투갈을 누르고 16강전에 진출을 확정지었다. 기억할 만하다.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 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 중 무릎에서 '퍽', 반월상 연골판 파열 주의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운동 중이나 퇴행성 변화로 쉽게 나타나는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H+양지병원 정형외과 이 용준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생활하면서 가장 잘 다치는 관절 부위가 무릎 관절이다.

무릎 관절이 잘 손상되는 이유는 다른 관절에 비해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관절 주변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때문에 무릎 연골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

‘연골판 손상’은 허벅지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위치해 충격을 흡수하는 반달모양의 연골판(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한다.

‘반월상 연골판’은 부드러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열될 수 있다.

발생 원인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한다거나 눈길, 빗길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장년

층은 연골 퇴행성 변화로 자신도 모르게 반월상 연골 파열이 진행될 수 있다. 자주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 등을 자주 취하면 발병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신체활동이 활발한 운동선수들의 부상 등 20~30대 젊은연령층은 주로 스포츠 손상으로 운동 중에,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퇴행성 파열이 주로 발생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반월상 연골판 손상 환자 수는 8만명에 달했다. 20~30대는 남성이, 50~60대는 여성 환자가 더 많다.

증상은 연골판이 찢어질 때 ‘퍽’ 하고 터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해 무릎을 다친 채 걸을 수 있지만 2-3일 후에는 무릎이 점점 뻠뻠해지고 부어오르게 된다. 한번 찢어진 연골은 스스로 붙지 않아 수술적 치료로 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연골판 손상 진단과 검사는 반월상 연골판이 위치하는 관절면을 따라 누르며 동통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통이 있을 때는 파열 가능성이 높다.

반월상 연골판 손상에 사용되는 스페셜 테스트인 ‘맥머레이 검사’는 무릎을 완전히 편 상

태에서 발목을 잡고 안쪽은 무릎을 돌린 채 천천히 구부릴 때 파열된 연골판에 긴장감을 줌으로써 ‘퍽’ 소리를 유발할 수 있다. 검사 중 환자가 손상 무릎 통증과 걸리는 느낌을 호소하면 검사를 멈춰야 한다. 환자에게 통증과 불안감 그리고 걸리는 느낌의 정도가 크다면 MRI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치료방법은 파열 정도, 파열 위치 및 범위, 증상 정도와 특징 및 지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증상이 심해 파열 범위가 넓거나 파열 부위 지속적 통증과 걸림 증상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관절내시경을 이용한 연골판 절제술과 봉합술이 대표적인 수술법이다.

‘연골판 봉합술’은 치유에 소요되는 시간은 4-6주이며 ‘연골판 부분절제술’은 특별한 제한 없이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다.

무릎 관절 건강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조절과 근력운동이 기본이다. 운동은 관절에 큰 무리를 줄 수 있는 격한 운동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등산은 높고 경사가 심한 코스보다는 평이한 곳으로 가볍게 산행할 수 있는 코스로 진행하는 게 좋다.

또한 하루 시간 내외로 빠른 걷기 운동을 권

유한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펴주는 운동은 무릎 위쪽 허벅지 안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을 강화해 무릎연골 손상을 예방할 수 있어서 평소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

“운동 중 무릎에서 ‘퍽’, 반월상 연골판 파열 주의”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 BUSAN -
KOREA



- 2030 -
WORLD EXPO



@ NOV. 2023

2023.

제22대 [신고·신청]
국회의원 재외선거
第22代国会議員在外選挙

11.12.

~ 2024.

02.10.

Ⓢ 투표하려면 **신고·신청**을 해야합니다.
投票するには申告・申請する必要があります。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国外不在者申告期間

2023.11.12.~2024.02.10.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기간

在外選挙人(変更)登録申請期間

2024.02.10. 까지
2024.02.10. まで

투표기간

投票期間

2024.03.27.~04.01.

매일 毎日 08:00~17:00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期間中、公館ごとに日時が異なることがあります。

신고·등록신청 방법

申告・登録申請方法

인터넷(ova.nec.go.kr)

インターネット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申告・登録申請ページへ



공관방문·순회접수

公館訪問・巡回受付

우편·전자우편

郵便・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 該当の公館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中央選挙管理委員会在外選挙ホームページ(ok.nec.go.kr)、外交部ホームページ(mofa.go.kr)、
在外同胞庁ホームページ(oka.go.kr)で選挙情報などの確認ができます。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진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하로서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조영CT,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학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죽등을 제공합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 BostonKorea.com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스마트폰에 즐겨찾기로 저장해 주세요.
- 보스톤코리아닷컴을 데스크탑에 북마크로 저장해 주세요

보스톤코리아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